朝鮮日報
夕刊 八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C.L. LIBRARY

藏相의大節減策에 各相의協力注目

公債新規發行額十億圓程度에끄치게하고 歲入歲出의均衡企圖

【東京電話同盟】結城藏相은 三十億四千萬圓의 十二年度豫算은 現在日本의 生産力에 適合치못함으로 此를 그대로 踏襲할時에는 物價騰貴를 招來하야 國民生活에 惡影響을 及하고 나아가서는 國防計畫遂行에 까지 支障을 生할 憂慮가 잇다하야 其節減에 對하야 閣議席上에서 各閣僚의 協力을 求하고 잇는데 藏相으로서는 人事費營繕費等을 爲始하야 各省歲出豫算에 相當히 多額의 節減을延期하도록 希望하는 模樣인데 이것으로써 稅制整理案의 修正에 基한 增稅額의 減少를 補塡할 意向임으로 歲入歲出을 通하야 修正하는 結果 적어도 一億圓程度의 減額을計圖하게되리라고 觀測되다 그리고 稅制整理案에對하여도 取引稅 財産稅 第二種所得綜合課稅를爲始하야 前內閣案에對하여는 可及的完全한修正을 加하려함으로 이에依한歲入不足도 相當히多額에達하리라고觀測되다 藏相으로서는 公債消化力의見地에서 公債增發을 避하려함으로 公債新規發行額을十億圓程度로 끄치게함에는 歲出豫算의修正에對하여는 極力이를主張하야써 歲入歲出의均衡을圖하려하는데 各省이藏相의意圖를體하고 어데까지 豫算減額에應할는지問題視되여잇다

九、十兩日模樣보아 三、四日停會再奏請

【東京電話同盟】林內閣의 政策을 具現하기爲하야 政府는廣田內閣이 議會에提案한 豫算案과 法律案을 檢討하기爲하야 來十日까지 停會를奏請하고 豫算案法律案을 議會에서 撤回하야愼重檢討하고잇는데 十日까지에到底히 檢討를完了할수업슴으로九日 十日의模樣을 보아다시三日乃至四日의停會를 奏請하기로되엿다 그리고이停會로 豫算審議期間은議會의 會期인三月三十一日까지延長한다고 해도議院法에依하야 決定된 兩院各二十一日間에 本會議上程日을 合算하면不足하게되나 政府로서는 政府가眞正으로 國策遂行의 必要上豫算案 法律案을 檢討하기爲하야 停會를 奏請하는것임으로 이것으로써議會의 審議期間이 多少短縮된다고해도 現下의 非常時局에鑑하야 貴衆兩院의 好意的善處로 充分豫算案의 成立을豫想하고잇다

政民兩黨總裁와 協力要求必要

政務官보내는데黨籍離脫不要 閣內一部에意見有力

【東京電話同盟】議會再開前에 압두고 對議會策에 對하야 林首相은 連日 閣議를 開하고 全面的檢討와 非公式으로 各閣僚의 意向을 聽取하는 同時에 特히 結城、河原田、山崎의 各相과 자조 鳩首協議를 遂하고잇는데 目下 政府部內에서는 政務官制度의 存廢에 對하여도 愼重硏究하고잇다 右政務官問題를 合한 議會對策은 今週初에 決定하기로되여잇는데 이에 關聯하야 閣內의 一部에는 右政府의 方針決定後 다시 林首相은 民政 政友兩黨總裁를 訪問하고 議會에잇서 協力하는데 對하야 意見을 交換할것이라는 意見이 唱道되고잇다 即 閣內의 意向을 綜合하면從來의閣內의 一方的懇請에 如히 單純한政府의 一方的懇請에 끄치지안코 積極的으로 此際政黨의協力을要請하야 時局을收拾함이 가장安當하다는意見를 力說하야 首相이兩黨總裁와 懇談하기를要望하고잇는데 其裏面에는 當然强力한主張을 包藏하고잇서 더욱政府로서도 容易히손을대일수업는問題임으로 果然그만한決斷을가질수잇슬는지 疑問視되여잇다 그리고 萬一政黨이 이에協力하야 政務官을 보내게되면 敢히 黨籍離脫을固執하지안을模樣이다

日本主義政治 鬪爭協議會 十日에發會式

【東京電話同盟】全國에散在한二百餘의日本主義團體를 統合하야 非常時의 時流에應하야 强力한 政治鬪爭을 展開할意圖로써 新團體를 結成하려하고 來十日午後二時 日比谷松本樓에서 大日本生産黨執行委員代議士江藤源九郞少將外 數十名 그他 右翼諸團體의 有力者가參集하야 江藤少將을 委員長으로新政治團體『日本主義政治鬪爭協議會』의 結成式을擧行하기로 되엿다 이協議會의誕生으로써 日本主義諸團體의 統制强化를 爲하야 中心機關으로『[illegible]時局協議會』를다시 [illegible]야 名實과함게右翼團體의 [illegible]를目指하고잇슴으로 其行動[illegible]『新日本主義建設』을 中心으로 旣成政黨打倒 共産主義 資本共産民主主義 個人主義의 徹底的粉碎等을 目標로來三月東京市會議員改選期를 機會로爲先 政治前線에 進軍하고잇는데 協議會의 動向은 擴大될可能性이 잇다하야 各方面에 相當한反響을이르키고잇다

司法大臣의起用에 部內의推擧確立

先輩十二人제처노은任意選拔에部內不滿 前例確立할意見有力

【東京電話同盟】林首相은 今回의 組閣에 當하야 大審院檢事局次長 鹽野季彦氏를 法相에起用하엿는데 이에關連하야 司法部內에는 將來 司法部內에서司法大臣候補者를 銓衡할 境遇에는 陸海軍大臣과 如히 三長官會議(司法部에잇서서는 大臣大審院長 檢事總長으로써 三長官으로한다)의 議는經由치안는다라도 前任司法大臣과 大體로 相議하야 推擧하는 形式을 取하는前例를 確立할 必要가잇다는 意見이 有力하다 其理由는左와如하다

一、齋藤內閣以來 四代의 法相을部內에서 보내엿는데 今回와如히 前任大臣을 두고 任意로 選拔한것은 部內 人事에關한秩序를 根底부터 紊亂케할 憂慮가잇고 特히 鹽野法相과如한 이는 先輩十二人을 제겨노코 大臣에 就任하엿슴으로 監督命令系統이 한줄로되여잇는 司法部內에서는 너무나 飛躍的인데 膨脹하는 狀態로 部內官吏의 人事에關한穩健한 觀念을 阻害할 憂慮가잇고 더욱部內人事政策에도 支障을招來할것이다

二、只今까지의 司法官은 職責의本質에 鑑하야 社交的으로 門戶를 開放함에 삼가 嚴格하게處身하여왓다 이것은一面에잇서 司法官이 沒常識에陷하는 原因도되여잇섯스나 司法權의 公正 司法官의 威嚴을 保持하는 所以도 이에잇다 大臣을 自由로 拔擢함과如한일이잇스면 檢事는 自己의利益을 策하기爲하야 大疑獄摘發을 意圖하게되고 司法權의危機를 招來하게될것이다

三、故로 小原法相이 林法相을 推擧한前例와如히 司法權擁護를爲하야 萬全의策을講究할것이다

以上의所論은 主로 上層部의判事間에行하여잇는데 妥協의論理로觀測됨으로 正式으로 鹽野法相에게까지 提出될模樣이다

明年度豫算案 二十八億圓以內로削減

【東京電話同盟】林首相은 結城藏相과 協議한結果 廣田前內閣의 編成한 明年度豫算案에對하야 彪大한 三十億四千萬圓의總額이 物價가 急騰하는 經濟界에 生하야 國民生活에 脅威를 與하는 事實을 重視하야 修正案을 約二億圓削減하고 總額二十八億圓以內에 긋치게할것을 根本目標로하는데 意見一致되어 目下 大藏當局으로하여금 削減豫算案의 檢討를 急히하려하고잇다 그리고 明年度豫算案은 國防計畫뿐이 아니라 各省歲出計畫이 모다多額의削減을 不許하는 實情임으로 結城藏相도 二億圓의 削減實施에 對하야 자못 苦慮하고잇는데 最近 이點에關하야內務當局間에 地方財政調整交付金制度의 實施延期意見이擡頭되야 注目을 끌고잇다 卽 廣田內閣은 家屋稅中央移譲及 戶數割全廢의 代償으로 地方財政調整을 爲하야 國庫에서 二億三千萬圓의 交付金制度를 樹立하엿는데 이에 對하야 河原田內相及內務首腦部는「地方」問題는 地方稅根本問題이며 稅制에 大變革을 實施하려는 此際 早急히 地方稅制의 確立만 改革을 行하려함은不可하다」고하야 今秋까지는 地方行政機構改革의 成案을 어들方針임으로 그때까지 交付金制度를 延期할것이라는自重論에 기우러진 地方大藏當局은 이것으로써 明年度豫算面에서 二億餘萬圓을 削減하는데着目하나 內務省側의 延期論에 贊意를 表明하고 잇슴으로 今後의 推移는 頗히 重大視되여 잇다

川越大使南京着

【南京七日發同盟】川越大使는夫人令息及 星田書記生을 帶同하고 七日午後三時南京에 到着하야 中國側의 森嚴한警戒裡에自動車로 官邸에入하엿다 南三日中에 外交部長 張群氏와會見할豫定인데 大使는 南京에 滯在하면서 三中全會의經過特히 對日方針의歸趨에 對하야 嚴重監視할 方針인데 적어도 二月末까지는 滯在할豫定이다

無條約狀態下의 日英米補助艦數

【東京電話同盟】英米二大海軍國은 無條約 第一年에 入하야主力艦二隻의 建造計畫實施에 進出하엿는데 日本海軍도 또한이에 對應하지안흐면 안될情勢인바 英國이 舊臘華府 倫敦兩軍縮條約의 失效直前 突然에 에스카레-타條項 適用에依한 條約超過의 驅逐艦四萬噸을 保有한데서 發端하야 日英米三國海軍에서는 各其 希望하는 巡洋艦 驅逐艦 潛水艦의 補助艦勢力을 保有하게되여 結局 無條約第一年勢頭부터 條約規定量보담 큰勢力을 保有하게되여 世界列强은 모다 逼迫된 國際情勢를 反映하야軍備 擴充에 拍車를 加하는 現狀이다 그리고 日本海軍이 最近에調査한 에스카레-타條項適用에잇서 日英米三國海軍의補助現有勢力은 左와如하다 (單位噸括弧內는隻數)

◀甲級巡洋艦

日本	一〇七、八〇〇	(一二)
米國	一五一、八〇〇	(一六)
英國	一四三、九七〇	(一五)

(其中 英國은 호킨스級三隻及練習艦빈딕티브를 包含치안홈)

◀乙級巡洋艦

日本	一〇一、五七五	(二〇)
米國	七五、九〇〇	(一一)
英國	二一五、〇七〇	(三八)

(日本은 平戶矢矧을 含치안코 米國은 올림피아를 含치안코 英國은 오리온스級三隻及 세레스級五隻을 含함)

◀驅逐艦

日本	一一六、五五九	(九四)
米國	二〇九、〇〇〇	(一八〇)
英國	一九〇、五〇九	(一五四)

(日本은 行、[illegible]、[illegible]를 含치안코 米國은 [illegible]未廢分艦一三三[illegible]噸一三三隻 英國은 廢分艦三一、一六五噸九五[illegible]三三隻을 各其廢棄한것으로함)

◀潛水艦

日本	六八、二九八	(五二)
米國	六七、四一〇	(七五)
英國	五六、一四四	(五四)

(日本은 [illegible]艦二隻을 含치안코 米國은 廢分艦七、五二二噸二三隻을 廢棄한것으로함)

南總督巡視結果 地方의庶政刷新

西朝鮮에서본缺陷指摘

半島地方行政의 實態를 把握하야 施政의 實効를 擧하려하는 南總督의 地方初巡視는 過般西朝鮮三道視察로 總督의 庶政刷新方針이 着實한 實行을 示하게되엿는데 아직地方에서는 其趣旨의 徹底를 缺하야 從來의 關係를 一擲할수업는것을 發見하게되엿는데 來十五、六日頃부터 行할湖南地方視察에서는 이러한缺陷을 嚴戒하야 着着地方行政刷新具現에 邁進하기로 되엿다 內務局에서도 이點에 留意하야 南總督의 趣旨徹底를 期하려고 努力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今回의 西鮮巡視에當하야 總督의所信에 合致되지안는 遺憾되는點은 全般을通하야 各道知事의 報告가 昨秋第一回의 各道知事會議에서 總督이 宣明한 施政方針이 如何히 下達에 徹底하엿고 또 効果가 如何히 反映하고잇는가의 가장 重要한點을 缺한데 잇는바 다시各地의 具體的送迎其他 行動上에잇서서 諸缺點은 左와如한것이列擧되다

一、神社參拜時의 準備及諸形式의不徹底
一、地方民의面接이 度를지나친것
一、指定地 以外의送迎(岐陽及海州農事試驗場과如히)
一、宿舍의 虛禮(鎭南浦와如히)
一、食事의過度(平壤及 載寧郡廳의晝食 鎭南浦의夕食과如히)
一、自動車 其他連絡上 手配의不徹底(黃海道)

그리고 道知事가 總督에게報告할時 參與官部長等이 列席함은 全然意義가업는것이라하야 今後巡視時에잇서 各道의注意를促하엿다

政綱政策을 林首相全國에放送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八日閣議에서 政綱政策을 決定하고首相의 名義로서 聲明하야 全國民에게 林內閣의 施政方針을宣明하엿는데 林首相은 이政府의 方針卽 政府가如何한 施政을行하려는가를 全國民에게 徹底케하고 民心安定을 圖키爲하야라디오를 通하야 八日聲明을 칠신 알기쉽게 放送키로 되엿다 그리고 이放送은 遞信省과協議한後 一二三日中에 行하게될것이다

北朝鮮開拓事業 事務協議會開催

北朝鮮開拓事業事務協議會는八日午前十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南總督臨席、山下林政課長統裁 平北 咸南北三道主務課事務擔任者 山農指導區監督事務所主任 江界 中江鎭 厚昌 咸興 新乫坡鎭 惠山鎭 茂山 會寧各營林署關係官等三十餘名이出席하야 爲先 農林局長代理 山下林政課長의 演辭가잇슨後 卽時議事에 入하야

一、昭和十一年度에잇서 事業의實績及 昭和十二年度에 잇서必行할 施設事項
二、火田民指導及 森林保護施設의 聯絡協調에關한 事項에對하야 咨申을行하엿다

會議는 明九日은 午前中 聽取事項、午後는 協議事項、十日午前協議事項 午後協議事項에對하야 各其協議를 遂하고 十一、十二兩日은 全北南原의 砂防工事地、愛林契及 更生指導部落及不二農場을 視察하고 十三日은 다시 協議事項에對하야 協議한後 全日程을 終了할터이다

北朝鮮開拓協議事項

八日부터 開會된 北朝鮮開拓事業協議會의 協議事項은 左와如하다

一、火田民指導及 森林保護施設의連絡協調
二、山農共勵組合及 同聯合會職員의採用及 敎養訓練
三、國有林保護組合及 同聯合會豫算其經理

八面鋒

伊土關係가 好轉되자 유고슬라비아와 希臘까지 四國間에 不侵略條約이되리라고。

◇

이러케 빨칸과 東地中海의 勢力이 安定된다하면 佛蘇를 中心으로한 一群의猜忌가업슬가。

◇

一月中에 米國에서輸出한軍需品값시 三百三十萬弗이라고 米政府가發表。

◇

戰爭이 나고안나는것은 알수업는일이나 武器製造業者로서는 한철맛난모양。

◇

蘇聯에 第三次大淸黨의暴風이일어나서 부하린以下의巨頭들이 監禁되엿다고。

◇

트로츠키、지노비에프、부하린等等。이러한順序를 밟는다하면 보로시로프와 스탈린의 葛藤도 浪說로만 듯기는어려울일。

矯激을排除하고 適合한革新斷行

林首相政府聲明發表

【東京電話同盟】林內閣의 施政方向을 宣示할政綱政策의 聲明은 八日閣議에 諮하야 正式決定하엿스므로 卽時書類의 上奏手續을取하는 同時에 八日午後零時二十分左와如히 內閣에서發表하엿다

林首相聲明

今回不肖不敏에 大命을 拜受하고 時艱克服의 重任에當하게된것은恐懼感激不堪하는바이다 卽當務를 맛고 淸新擧實한內閣을 組織하려고 微力을다하야 이미組任을 時하엿고 夙夜消勵하야 敢히 報効의 誠을다하려 하는바이다 至誠奉公의本은 聖旨를 拜하고 日本의國體本義에 基하야 肇國의理想을 顯現함에잇고 刻下內外諸般情勢에 鑑하야 時勢의 緩急을鑑하고 現內閣의政綱으로 特히 表明하는바는 大略左와如하다

一、國體觀念을 더욱明徵히하야 敬神崇王의 大義를 益益闡明하고 祭政一致의 精神을發揚하야 國運進暢의源流를 기피하기를期함
一、欽定憲法의條章에 恪循하야 我邦의獨特한 立憲政治의 發達을期하고 輿論을 暢達하야 公明한 政治의運行을 期함
一、國際正義에 則하야東亞의安定과萬邦共榮을 具現할目的으로써擧國一致의 外交國策을遂行하야 國際關係를明暢케하기를期함
一、帝國을 安泰케하고 其興隆을 擁護하야 國是實績에 必須한 國防軍備를 充實히하는同時에 生産力增進을 圖하는等 國力의基根에 培하기를期함
一、內外의 經濟情勢에 適應한 産業의 綜合的發達을 企圖하야 保護施設과합게 適切한統制를 實施하고 그리고國民創造力의 發揮企業心의 勃興을助長하기를 期함

以上에 記한것을 達成하기爲하야 矯激을 排하고 因循을 戒하야 時勢에 適合한 革新을斷行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世上은 適當한바를모르고 其道를 實로 協同을缺하고 故로 執着하야 利害를따라 對立抗爭하는데잇스므로 和衷共濟하면 事理自通할것이며 內外時局이 緊急한 때를 當하야 國民生活의 安定을 圖하고 人心不安을 解消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今後에 嘉議를期하야 卽懸案인庶政一新의實을 擧하야 時勢에 따를수 잇도록 할것이다 現內閣은 私黨을滅하고 公에奉하야 偏黨함이업다 바야흐로 大命을 拜하고 施政을 奉公함에 當하야 赤誠을 披瀝하야 一意革新方途를 講究하야서 鴻猷翼贊의途를 다하기를 期한다

昭和十二年二月八日
內閣總理大臣 林銑十郞

具體的政綱政策은 首相一般施政演說中에

【東京電話同盟】林首相은 組閣初에 新內閣의 施政大綱을 中外에宣明하야써 民心의安定을 期하기爲하야 大橋書記官長及川越法制局長官이 各閣僚의意見을 聽取하야 政綱政策에關한 聲明文案을 起草하고잇든中 過般脫稿되엿슴으로 六日閣議에 附議하엿든바 各閣僚로부터 다시修正意見이나왓슴으로 再次大橋書記官長이 修正意見에基하야 字句修正과 補整을行하야 八日臨時閣議에 附議하엿든바 正式決定되엿슴으로 卽時上奏하야 此를內閣에서 發表하야 林內閣施政의大綱을 中外에宣明하엿다 그리고今回의 政綱聲明은 國體明徵 外交의一元化 憲法政治의恪循 國民生活의安定等을 基本으로 施政方向을 明示함에끗치고 具體的政綱政策은 再開議會劈頭에 行할 林首相의 一般施政方針演說中에 包含시혀 全國民에게 表示하기로되엿다

中村陸相入院

【東京電話同盟】中村陸相은 感氣로 七日午後四時 牛込陸軍軍醫學校病室에 入院하엿다 陸相의 容態는 至極히 輕微하야 當分間 病院에서 出勤할터이다

伊兵一萬五千名 말라가戰線向發

【지브랄타르七日發同盟】카디스港으로부터 七日午後 지브랄타르에到着한 信憑할만한 英國人의談話에依하면一萬五千의 伊國軍이三日부터 六日에 亘하야카디스港에上陸하야 말라가戰線에 向하엿다고한다 右英國人은伊太利兵의 上陸을 目擊하고 運送船의 名稱을 밝히러하엿스나 監禮는 收容하엿슴으로 目的을 達치못하엿다고말하엿다

梅津次官首相과協議

【東京電話同盟】梅津陸軍次官은 八日午前九時半 首相官邸에林首相을 訪問하고 今日閣議에 中村陸相이 缺席하게되엿스므로政綱政策問題其他에 關하야 陸軍의 方針을 說明하고 協議한後同十時辭去하엿다

003907

朝鮮文學
朝鮮文學=新人創作特輯號 第三卷第二號
그늘진사람…(當選小說)…尹世重
故鄉업는사람(選外佳作)…申永淀
도야지…(小說)…孫興嗜
어둠의나라…(小說)…嚴淳曙
日曜日…(小說)…任星植
意欲…(小說)…金載得
顚倒…(小說)…朴北均
同志愛…(小說)…李無雲
墳墓…(小說)…李芽煥
보리고개…(小說)…朴李民
어머니와딸…(詩劇)…朴奉影
北國의女人…(小說)…池崑枝
季節…(詩)…尹夕文
早春…(詩)…李鶴
蘭草…(詩)…李雲嵐
바다…(詩)…辛夕汀
당사리의鑑賞味…楊雲閑
朝鮮文壇과新人群…洪曉民
栽培의和諧과曉民의新創作評論…金文輯
寫實主義의現代的意義…尹鼓鍾
新春文藝選後感…選者
二月號 三十錢 京城敦岩町四五八의四 朝鮮文學社 振替京城一四六八八

문둥병
大阪市新川三丁目 大福堂

東洋音樂學校 男女生徒募集
◈豫科、本科 ◈入學試驗 四月五日六日 ◈東京市豊島區雜司ヶ谷
◈普通科入學資格小學校卒業考査申込順 ◈別科受驗科臨時入學許可

迅速正當한治療法
코흘리고 메는대
코흘리고…맥히고…惡臭…냄새를모르는사람은蓄膿症、肥厚性鼻炎、鼻茸、鼻加答兒等의惡性鼻病이發生하는證據로人相이낫버지고、頭痛、耳鳴、記憶力、思考力이減退되고 이생긴腦도身體도人相도낫버지는무서운鼻病을아는法、醫學上의正當한手當은冊子 鼻病解說 을보면누구나알수잇다
新聞名을記入申込患者에게無代進呈
東京芝區南佐久間町二ノ二 確報堂藥品部
코가낫분兒孩의人相

チドリ椿香ポマード油
本舖 高木大宝堂 大阪市東区清堀町八 電話南六五一番

돈버리의王 一夏의利益五千圓
高級アイスケーキ機械
其他各種冷凍機特價販賣。豫約開始
代理店。特約店外交員募集。
型錄進呈。製造營業秘法傳授
釜山府大廳町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恩給 最大長期分立替取扱의迅速과信用은本會의特色 詳細照會에回答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모히痲藥 中毒治療 無苦痛完治、通院自由 通信問議歡迎
天安本町 仁濟醫院

耳 人工鼓膜
サンセイ會

金石 大阪西區 石橋機械製作所

最新最効 物療電醫責任養成
朝鮮高等電醫總本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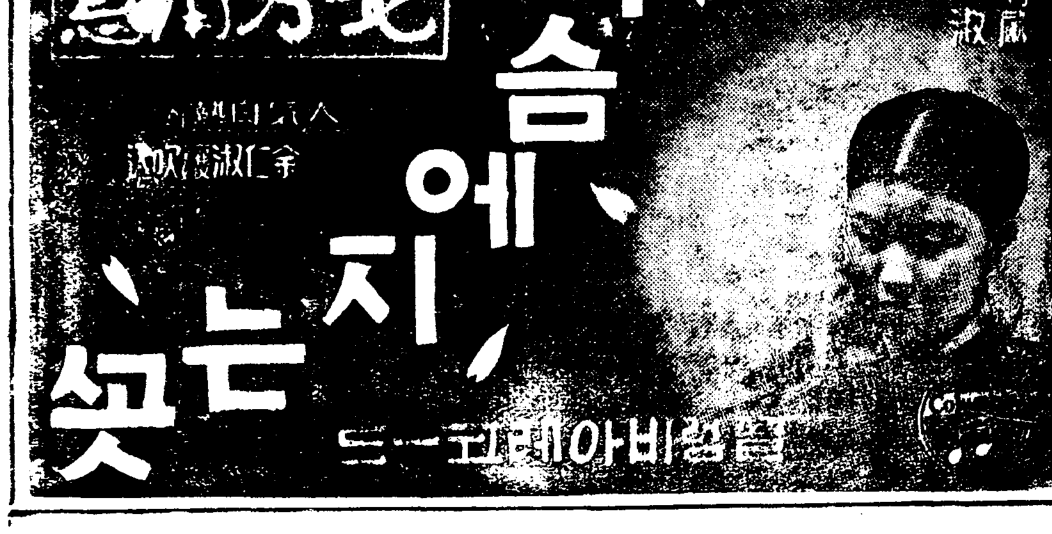
普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一、第一學年約百名
一、出願期日三月十五日까지
一、試驗期日三月二十日至三月二十四日五日間
(京城府惠化町一番地詳細는本校)

우리正月歲拜에 어린이가조와하는 「榮養菓子」 不老草 ミルクキヤラメル를드립시다
商標 登錄
京城東大門市場 咸聖商會製菓本店

珍花果樹
果樹苗木、ばら、種子球根 春の總目錄無代進呈
兵庫縣川邊郡山本 陽春園植物場

コンドーミシン
高級國產機 이것만은國產의 代表 實로優秀한 이權化…
朝鮮總代理店 楠商店 京城府鍾路二丁目二十七番地 電話光三九六番

軍手
이은자리업는軍手의 製造家募集
京城府西大門町一丁目八十四番地 常盤商會
東京市神田區五軒町九の一 常盤商會 電話下谷三三七一



新民謠 가슴에지는꽃 金仁淑
北方的消息 金仁淑
콜럼비아레코-드

教養、禮儀、人品을主로 新鬼門·口頭試驗

應用問題는全廢하고身體檢査를重視

中等校入學試驗의새角度

종래중등학교 입학시험은 학과에만치중하든것을금년부터는신체검사와 구술시험에 치중하기로되엇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그내용이라 지금까지는 학과시험에치중하든시에 응용문제를만히 내어왓스나 금년부터는 응용문제를 일체내이지 안코특변동안배운 교과서중에서 극히평이하게 내일터이며 구술시험은종래야간혹마다 무리보고말든것을 금년부터는 문답상식 교양태의, 인물등에대하야 무를터인데 보통학교에서 특변동안 배운그정도에 못는다고는하나 구술시험의 못는범위가 광범하고도 마연한이만치 대단히어려울것은 물론이며 신체검사도 종래보다 매우엄밀히할터이며 이러케 중등학교입학시험내용을 개정하는것은 입학준비교육을 금지하야 아동들의보건(保健)문제를고려한점도잇지만은 학과표준을 입물표준으로 장래전차교육방침을전환하라는계획이다

으로 그날밤 신설정(新設町)경마장에서 수두섬 그근방집에서 회로(시가약오원)를 도적하엿든것을 자백하엿다

專門學校도 同一方針으로 人物과健康을標準

별항과가티 중등학교 입학시험의 내용을개정하는 동시에전문학교 입학시험내용도 개선하야 종래학과에만 치중하야 온든것을 금년부터는 구술시험과 신체검사에 치중하야 인물과건강을표준으로할터이다

竊盜詐欺無錢 取食家「꿀인」

원산(元山)에서 출발한 절도사기 무전취식려행가 한명이 칠일밤본정서류치장에 『꿀·인』하엿다

웅본현(熊本縣) 출생빈일출부(濱日出夫)(二七)는 지난달하순에 원산을 출발하야 경성까지 오는사이에 수차도중에서 하차하야 려관에이삼일식 투숙하면서 절도또는사기로 다음예정지까지 갈로자를 준비한후 교묘히 려관주인을 속혀서 숙박료를 지불치안코 탈주하야 지난이일에는부내황금정(黃金町)사정목 대화옥려관(大和屋旅館)에 투숙하엿는데 칠일오후 일곱시쯤되여백원지폐를 박구어서 숙박료를지불한다고하며 려관하인을종로(鍾路)모악기점에 다리고가서레코-드한장을사서 먼저돌려보낸후 도망하려다가 본정서원에게체포되엿다한다

自動車不注意로 고기장사負傷

칠일날 아침 여시경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일백오번지압 길에서 종로(鍾路)방면에서 서대문(西大門)쪽으로 질주하는 시내종로(鍾路)일정목한양(漢陽)택씨-운전수박제칠(朴濟七)의 관경(京)一一六七호자동차의 관수정(觀水町)어백삼십번지 고기장사하는 신대춘(申大春)(二二)의 자전차가 충돌되야 신대춘은 다리에 일주일 가량의 상처를받고 동생의원(東生醫院)에입원치료중이다 원인은 자동차의 부주의한탓이라고한다

栗谷先生生誕記念會盛況

율곡(栗谷)선생 생탄사백일년기념회합은 예정과가티 칠일오후 다섯시반부터 시내 태서관에서 윤치호(尹致昊)씨사회로 열리엇는데 선생을 숭모하는 사회유지 사십여명이 참집하야 성황을 이루엇다한다。(사진은 동회장)

軍用트락顚覆 兵十一名死傷 ◇安東縣附近에서

【安東八日發同盟】아동지 관전현(寬甸縣)으로향하야 아동현출발한 우도(牛島)부대는 이날오후 □경시반 안동 관전현사이 마의령(馬衣嶺)(안동을떠나서륙리)에 다다럿슬때에 길이 어렷기때문에 운전수실수하야 트럭이 노피한간반되는 언덕위로부터 떠러저 전복하야 사상자 열한명을 내엿다

▲即死 二等兵 高橋 善次
▲重傷 二等兵 島田忠太郞 同 內田 仁
▲輕傷 二等兵 渡邊 義夫 同 田原 英夫 二等兵 鈴木 喜男 同 石坂 隆俊 同 川田 定二 同 三吉 富造 同 笠原 德一 同 坂本 良彦

廢鑛에서突然出水 鑛夫六名이慘死

―平北完豐鑛山에서―

【新義州支局電話】칠일오후다섯시 평북창성군신창면완풍리(平北昌城郡新倉面完豐里)완풍광산(完豐鑛山) 제일광구에서 광부열명이 작업을하는중에회광(橫鑛)인 폐광(廢鑛)으로부터 갑작히 물이몰려나와 작업하든 광부열명중에 여섯명은 사망하고 비명은 사력드는데 방금주재소원과 광부일곱명이 구조작업을하는중이나 현장은 마흔다섯자가량이나 물이채여 아무희망이업다고하며 죽은 광부의씨명은 다음과갓다

▲善東甲(二四) ▲韓泰植(二三) ▲許基用(二七) ▲朴仁洙(四〇) ▲金用化(二二) ▲尹明泰(二五)

"通譯組"道會議員 來期부터立候補阻止

今後會議席上通譯은廢止

"舊進"道議에大霹靂

오는오월삼십일로 임기가만료되는 각도회의원(道會議員)은 전부사백이십이명인데 이중에는국어를 통치못하야 도회의때면도 청직원이 일일히 통역을하지아니하면 토의사항을 알어드를수도업는동시에 물론자기의 의사를 전연표시할수가업슴으로 그들에게는 통역을붓치는것을 인정하야왓스나 금년부터는 도회때 통역을붓치는것을 총독부에서 엄금하기로하얏스며 오월십일에 도회의원개선할때에도 국어를모르는사람들은 될수잇는대로 출마하지못하도록 할방침인데 이에따라 각도 조선도회의원중에는 다시 출마할수가 업는동시에 개선기를압두고 각도에 장차 축록전(逐鹿戰)이 맹렬할것을 예상하고 벌서부터 알롱비약하는 모양인데 이들에게는일대청천벽력이다

通譯은廢止 西岡地方課長談

이에대하야 총독부서강지방과장(西岡地方課長)은 다음과가티 말한다

종래각도회의때에 국어를통치못하는 의원들에게는 통역을부처왓스나 금년부터는 그것을 폐지하기로하얏다 이것은 의원자신도불편하거니와 도당국으로서도 매우불편하기때문에 폐지한것이다 오는오월에 선거할도회의원후보자도 될수잇는대로출마하지말어주기를 바라는바이다 가령어지로 출마하야 당선된다하드래도 통역을폐지하얏슴으로 아무의미가업는일이 되고말것이다 그럼으로립후보(立候補)를 금지할법적근거가업슴으로 무리로 금지할수는업스나 되도록 립후보하지안도록 할방침이다

光復團員朴棕植 上告棄却無期役

대정구년칠월에 미국상원의원단이 조선을통과할때에 그들에게 조선××의사를 보이기위하야 조선내 큰도시를폭파하라는 지령을바더가지고 평양(平壤)으로 동지네명과함께 폭탄을가지고가다가 그해칠월사십일 안주군련호면동사리(安州郡燕湖面東四里)압거리에서 안주경찰서룡□(□義)와주재소근무순사 두명을 권총으로쏘아한명은즉사케하고한명은중상을입게한명양읍생으로 현재상해에서조계하비로하비방(上海法租界霞飛坊)에사는광복단원(光復團員)박종식(朴棕植)(二五)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 제령위반급살인미수사건언도공판은 칠일고등법원에서 희다(喜多)재판장주심 촌전(村田)검사 관여미혀 열렷는데 재판장은그에게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여 그는드디여 원심판결대로 무기징역형이확정되엿다

賂物먹엇다는 投書一枚

龍山署에서事實調査

팔일오전열한시삽분쯤에 룡산경찰서사법주임에게로 경성역전의 산전신일(山田新一)이라는사람이 보냇투서가 한장날러왓는데 그내용은 대략모관청원리가 리돈으로 이만원을먹엇다는 글이엿스며 그리면에는 어떠한부정사실이나 잡지하지·안혼가하야 동서에서는 비밀리에 조사중이라고한다

大金을훔처낸 犯人은동생

경남밀양군부북면룡지리(慶南密陽郡府北面龍池里)엄평룡(嚴光龍)씨의 동생 차룡(且龍)(二三)이는 오일오후한시쯤에 금고에들엇든 현금 이천사백원을가지고 경성(京城)으로 다러나고말엇다는데 팔일 엄평룡씨가 본정서에 수사원을 제출하엿다한다

老賊格鬪逮捕

팔일새벽 다섯시경 시내동묘(東廟)부근을 지나가는 수상한 사람을 순찰중의 동대문서원이누구냐고 물어보앗더니 가지고가든 물건을 버리고 다러남으로 곳추격하야 영미교(永尾橋)부근의 청계천(淸溪川)복판에서 일장격투끄테 체포하엿다고 한다

그는 주소가일정치못한 김수경(金守京)(三七)이라는 늙은 도적

"密告料"强請漢……

開城署에가서每日가티조른다고

鍾路署에說諭手配

『스파이장사도 돈버리의하나이라면 그밀고료(密告料)를 직안는다고 야단치는것도 현대상(現代相)의 하나일것이다』=팔일아침 개성서(開城署)로부터 종로서에 장거리전화로 시내 옥인정(玉仁町)김모(金某)라는자가 매일 개성서 모형사를 차저와서 약속한 밀고료(密告料)를웨 주지안느냐고 야단을 치고잇스니 미안하지만은 귀서에서 불러다가 취조하여달라고하는 부탁이다 작년가을쯤 개성서(開城署)형사대가 상경하야 종로서원의 응원을 어더서 근래에드문 대규모의 홍삼밀조단(紅蔘密造團)을 일망타진으로 체

코 그들을 체포하게 되엇는데 그당시 상당한보수를줄것을 약속하엿슴에 불구하고아지 안준다고하야 그리하는것이라는데 그서에서도 두통을알코잇는모양이다

太田胃散
藥效如神
四時常備의胃病靈藥
東京 太田信義藥房
各地藥店에서發賣

檢束生徒釋放

生徒大部分이登校

電機校盟休遂解決

루보-경성전기학교(京城電機學校)의 동맹휴교사건으로 본정서에 검거되엿든 이십여명학생은 칠일밤전부 석방되엿스며 팔일에는 륙백여명 재학생중에서 약팔십명가량의 결석생이잇는데 학교측에서 가급적속히 실시할수잇는 삼개조를 용인하엿슴으로 귀성중에잇는 학생들도구일까지에는 전부등교하게되리라고 하는데 이사건도 이로서 일단락을지은세음이라고한다

格鬪끄테붓잡은 怪紳士의正體는

稀有大賊으로判明

滿洲와朝鮮서"스리"專門하든

만주국과 조선을 걸처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스리』와 절도질을하고다니다가 요지음 신변이위험함을 깨닷고엇□마전에 시내에 잠입하야 신흥한 신사체림의 대적이서대문서에 붓잡혓다 팔일새벽 시내봉래정(蓬萊町)부근을 배회하는그태도와 눈짓이 수상한 괴신사한명을 소관서대문서 형사가 발견하고 이를미행하야 일대격투끄테 붓잡아다가 서대문서에서 엄중문초를한결과 그는 일정한주소가업는 전과이범 차동렬(車東烈)(三一)이라는 사람으로 작년봄에 대련(大連)형무소를 출감한뒤에 만주국각지에서 스리와절도질을하고다니다가 요지음 신변이위험함을 깨닷고 얼마전에 시내에 잠입하야 신흥한 신사로 차리고 시내각귀금속점과백화점을 드나들면서 다액의절도를 하던것인바 시내황금정(黃金町)삼정목 일비(日比)시계점에서 금시계열개를 도적한것을 비롯하야 각처에서 약삼십건의 절도를 한것을 자백하엿는데 그 피해가 우선나타난것만 하여도 이천여원에 달한다는바 경찰에서는그의여당이 잇는것을알고이를방금추궁중이다

新堂町에火災 七戶全半燒

팔일새벽세시반경 신당정(新堂町)일백륙번지의삼호 최주상(崔周相)의 집에서 출화하야가든번지 림상순(林相俊) 황석환(黃石煥) 최수덕(崔壽德) 허치조(許致祚) 리준(李鍾俊) 조병회(趙秉會) 리동헌(李東憲)의 일동칠호를 전반소하야 기둥네시이십오분경에 진화되엿다고한다 원인은 전기최주상의집 경방을빌고 호떡장사를 하고잇는사람이 그전날저녁불을 다 끄지안코 갓든것이 그만 화재를 이르키게된것이라고하며 리재민수십명은 대개품파리하는사람인만큼 읍녀세모를 압두고 비참한정경을 보이고잇다고한다 손해는약오백원가량이다

사람에게홀린 여호목도리

彷徨中의窃取犯을逮捕

칠일밤열시지나서 종로서원이 관내를순찰중 여호목도리 여러개를 가지고다니는자를 그서에 인치하야 취조한결과 그는 신당정(新堂町)일백오십일번지 문홍교(文興敎)(二二)이며 그날저녁 때쯤에 방금 미체포의조병선(趙炳善)(二三)이하고 공모하야 창신정(昌信町)일백오십사번지 정수진(丁秀鎭)의집에 드러가서 전기여호목도리 여섯개를 훔친것을 자백하엿다

天氣豫報

概況 七八二粍의 高氣壓은 滿洲로부터 朝鮮을거처 日本內地에 퍼지고잇고 小笠原島附近의海上로 氣壓이 좁음다 低氣壓은 本州中部의南海上에 七六〇粍를 보이고잇다 滿洲와朝鮮은 개엿스나 半島中部의東岸에 降雪이잇고 氣溫은 昨朝보다 五度內外가 내렷다 九州四國은 개엿스나 其他는 흐리고 琉球諸島와 裏日本은 비가오고 東北地方及 北海道는 處處에 降雪이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오늘밤 개엿다흐렷다하겟고 明日도마찬가지며京畿道全區도以上과갓다

昨日最高	四度七
同 最低	零下四度一
今朝最低	零下五度
今日正午	二度五

實業家劉氏집에 大金强要의脅迫狀!

態度殊常漢을逮捕

【仁川支局電話】구년말이 밝두한이때에 무시무시한 협박장=지난팔일 시내욱정(旭町)에잇는 인천실업가 유군성(劉君星)씨집으로 한장의 협박장이 날러드러왓는데 그내용인즉 현금 이천원을 칠일오후세시까지금곡정(金谷町)으로 … 협박장으로 …

인천서에서는 즉시로 범인을체포코저 협박장에 기록된대로칠일오후일곱시경에 형사대가 금곡우편소 부근에 매복하야 범인의 나타나기를 기다렷든바과연얼마안잇서서 로동자차림을한 젊은사람하나이 어름거름하고잇

同德主催少女卓球

好壽敦崔孃優勝

同德女子高普主催의 第一回全朝鮮中等學校女子卓球大會는 七日午前十時半부터 同校卓球場에서六個校選手四十名이 參加한가운데 開催되엿는바 이날의戰績은다음과가트며 準決勝戰에드러가 朴金鶴孃(貞和)이 金福嬡(同德)을 崔福順孃(好壽敦)이 許富得孃(貞和)을 이기고 決勝戰에서 崔福順의攻勢猛烈하야 朴金鶴孃이 三對零으로끝나서니 最初大會의 優勝은 好壽敦崔福順孃이 獲得하엿다 이리하야 大會長 結束植氏로부터 優勝旗와副賞을 授與하니때는 午後五時엿다 (寫眞은 … 朴金鶴孃、三等金福嬡、許富得諸孃)

【準準決勝】
金福嬡(同德)3…0李瑛□(同德)
許富得(貞和)3…2金淑中(同德)
朴金鶴(貞和)3…1鄭吉人(同德)
崔福順(好壽)3…0許純錫(貞和)

【準決勝】
朴金鶴(貞和)3…0金福嬡(同德)
崔福順(好壽)3…1許富得(貞和)

【決勝戰】
崔福順(好壽)3…0朴金鶴(貞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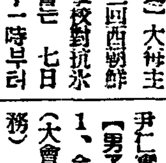
關西蹴球快捷

【東京電話同盟】第六回東西選拔蹴球對抗戰은 七日午後二時부터 神宮競 … 바 結局四對零으로 關西軍이快捷하엿다

關西軍4(1…0 3…0)0關東軍

新高制覇 一點差로光成二位

西朝鮮中等氷上



【平壤】大每主催第三回西朝鮮中等學校對抗氷上大會는 七日午前十一時부터 大同江링크에서 北國의覇者新義州高普를筆頭로平壤光城高普、新義三務、平壤崇仁商業 平壤中學 平壤高普、平壤女高普等七個校가 參加하여 新義州高普와 光城高 … 사이에 猛烈한爭覇戰이 잇섯스 … 로 新義州高普가 優勝한後 午後四時頃閉會하엿는데 이날의戰績은 다음과가다

【男子五百米】1、任秉奎(新高) 五二秒八(同大會新記錄)2、李東華(平高) 3、高順昌(三務)4、崔致遂(光高)

【女子五百米】1、安德實(平女高) 一分二四秒2、金寶實(同)3 尹仁實(同)

【男子五千米】1、柳得浩(光高) 1、金健會(新高)一〇分二二秒三(大會新記錄同다임)2、李泰洽(三務) 一〇分三四秒五(大會新記錄) 3、任秉奎(新高)一〇分四七秒六

【女子千五百米】1、鄭遇信(平女高)五分一三秒二 2金希善(同) 3、鮮于寶瑞(同)4、李鎬善(同)

【男子千五百米】1、金健會(新高)二分五七秒八 … 3、李泰洽(三務) 4、朴根秀(同)

【男子一萬米】1、柳得浩(光高) 一三分一八秒六 2、金健會(新高) 一三分一八秒七 3、金官洙(三務) 4、朴雲峰(光高)

【女子千六百米릴레이】1、平壤女高普팀四分五三秒六

【男子千六百米릴레이】1、光成高普팀三分一秒一 2、平壤高普팀三分一秒八 3、三務팀三分三秒九

◇得點順位
▲優勝校 新高一五·五點 2光成高普一四·五點 3三務一〇點 4平壤高普六點 5崇仁商業三點

(寫眞은 新義州高普의 金健會君)

悲劇 漢江물은 푸르건만 三幕
李雲芳作
方今東洋劇場에서 靑春座上演中인 傑作篇
人氣劇團
靑春座舊新年特別公演·朝鮮聲樂硏究會特別贊助出演
崔獨鵑脚色 天下逸品 絶對豪華版 春香傳 全篇
舊正月一日부터四日間 (二日은晝夜 三·四日은夜間)
料金 五十錢均一
府民館에서

歸京公演 劇團豪華船
劇團豪華船이豪華의豪華를갓추어凱旋公演을하게되엿습니다 左記上演劇本은豪華船員의演技가아니면絶對볼수업는興味百퍼센트의二大名作입니다이번機會를일치마시고꼭보아주십시오
▲上演劇本▶
南宮春編 歌劇 長恨夢 九景
蓬萊山人作 黃金狂時代 二幕
舊十二月末日밤부터 東洋劇場

회충엔 오리가제일
촌충엔 도로무사

치질엔 엥구루가제일

해소기침엔 에치세가제일

속병체종엔 겡오가제일
사람의위장(胃腸)은 신체모든기관의원동력(原動力)이된다 위장이약하면 만병의근본이되나니 …

약을써보시고 만일무효면 어더한 책임이든지 집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側(五)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振替京城四九九〇

아무거나·쓰리지안코·爽快히잘듯는

대학목약

大學目藥

登錄商標

半島의 無姬 崔承喜孃 曰

名眸의秘訣은大學目藥의愛用에잇읍니다, 同胞諸孃이여 彼此에 아름다운强한눈을가집시다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 龍藏氏
醫學博士 吉田 義治氏
醫學博士 山中 宏之氏
醫學博士 豊田 正壽氏

推奬

流線型容器

—스마—트하고便利한自動點眼容器—

000906

體千兩 目九百兩

눈의治療에힘쓰라

眼質原因의거의全部가 不潔과 榮養不良에잇습니다, 塵埃와 煤煙과 때에더러운얼골과 눈을씻지안커나 더러운손으로 눈을문지르거나해서 疾眼이생깁니다, 太陽의强한紫外線과 컴컴한電燈下에서 일을하거나 細微한 文字를읽거나하는일로해서도 눈은 疲勞하야 弱해집니다, 눈이 붉어지거나 눈곱이끼거나 좀아푸거나할때에 곳 治療를加하면 病이되지안코 말것이라도 治療를 加하지안코 버려두는故로病이되는것이며 病이된뒤에는 治療가길게끄는것입니다。

眞正한 治療法과

눈을强하고곱게하는法

眼疾의眞正한治療法은 于先大學洗眼藥（目藥에添付）一錠을곱부半分의 熱湯에녹여서 식힌뒤에 까ㅣ제에 적시어 눈의안팍을 輕하게 몃번이고 씻습니다, 다음에 大學目藥 二三滴을 點眼합니다, 이것을 每日三回 꾸준히 繼續하면 지금까지 좀처럼 낫지안튼眼疾도 顯著히快差해갑니다。

또, 지금은눈이 나뿌지안트래도 每日豫防해두면 眼疾이되지안코맙니다, 그것은 每朝洗面後에 大學目藥을一二滴點眼하면고만입니다, 아츰엔 눈곱이끼고해서 第一不潔ㄷ 때오니 每朝點眼하시면 언제나 强하고 고운눈을保有할수잇습니다, 特히 婦人의美眼法으로는 이것이 第一입니다。

大學은 權威잇는

世界的高級眼科藥

大學은眼科醫學의泰斗五大博士의推奬하시는바治療力이極히强한目藥으로殺菌、防腐、收斂의効果와專賣特許製劑우르비올레긴이라는紫外線防止藥까지配劑되여잇는故로、단한가지로實로左의세가지作用을가젓습니다。

一、眼疾을速히治癒하는힘
二、눈을아름다웁게하는힘
三、紫外線의害를防止하는힘

따라서眼疾잇는분이쓰시면速히回復하고、健眼하신분이쓰시면强한눈고운눈이되고、老人이쓰시면視力이젊어지고、바다와山에서쓰면紫外線의害를밧지안코맙니다。

아이들에게 小兒用大學目藥

大學目藥은조금도아푸거나쓰리지안코、썩爽快한氣分을주는故로、아이들에게쓸지라도괜찬습니다마는、十歲以下의小兒에게는小兒의눈에맛게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습니다。

酸硼보다나흔大學洗眼藥

大學洗眼藥은、最新殺菌藥너이보르미친을主藥을삼은强力한消毒力과治療力과點眼藥의作用을돕는効果가잇는洗眼藥입니다。大學獨特의創製品으로完全消毒싸니테ㅣ프包裝을하야大學目藥一瓶마다、添付하엿습니다。不足하시거든洗眼藥만의賣品도잇습니다。

適應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疲勞眼 ○다락기 ○[illegible] ○結膜炎 ○흐시는눈 ○[illegible] ○흐린눈 ○光線眼炎 ○[illegible] ○[illegible] ○상한눈 ○잡눈 ○진안질

定價

人氣 [illegible]케ㅣ스付
大 五十錢
[illegible] 五十錢
[illegible] 一圓

케ㅣ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四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五十錢

大學洗眼藥
十錠 十錢
廿一錠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눈위을 거르며 ……(네 혼인도 며칠안남앗구나 후-)

내외간 싸움은 일종의 스포-츠

권태기 부부생활에 큰 자극제

정애 한번 싸움에 한번 더 기퍼

보기에달렷겟지요만 내외싸움처럼 멋적고 숭겁고 시시한싸움은 업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심각하고 미묘한싸움도 내외싸움이외에는 별로 업슬것입니다. 길다가보면 개두마리가 서로 뎀벼들고 무러뜻고합니다. 그것을 싸움으로 보겟습니까. 그러나『마스틴푸』나『불떡』의 싸움처럼 피가나게 싸우는경우도 업지아니잇스니 이런비웃은 내외싸움에다 댈것이아니고 원수싸움이라고 할밧게업습니다. 힘껏쥐어박어도 상대편이 시원하게여이이고 꼬집어뜨더도 저편에서 근질근질하게여길만한 울바전이 아마부부싸움의극치라고 볼수잇겟지요 금방 죽는소리를 처도 동내사람이 뜨더말릴수업는싸움, 이싸움은 가장하기어려운싸움이 겟지만 부부람 이싸움을 자조하고 잘하는데따라 애정에대한 양식이되는것이라고생각되는군요.

내외싸움에도 종류가여러가지되겟지만 대체로 나누자면 네가지로볼수잇습니다 제일든저는 생리적 불만으로오는 싸움인데 특히부인들은 생리적 변조가잇는전후에 정신상태가 보통때와 좀달러집니다. 아모리 건강한부인일지라도 그때가되면 일인지 마음이 들끌코 끌따지가나고 까닭모르게 싸움을 걸고시픈젭니다.

즉생리적 흥분기에 잇게되것인데 이런한때 남편되는분이 냉담해서 본숭만숭하면 안해편에서는 당장울화가 터저나와 싸움한판이보기조케 버러지게 되는것입니다. 점잔흔 남편이면 『왜 이러케 신경을 부리고야단이야 저리가잇서』 이런소리를하고 피하신다면 아씨께서는 『흥 날가튼것하구는 말하기두실켓지요…』하면서우름을 울러든리거나 머리를 쥐어뜻거나하게되는것입니다. 『왜들그래』하고 어른이나 서시게되지요……

풀무든것을가지고 싸우는이런류의 싸움이니까 시비를 가릴수도 업슬겝니다. 그러나 이것은표면에드러난것이고 기실은 아모에게도 말못할 안해의 성시적불만

이 기픈원인이 되어 어련 야단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만습니다. 그럼으로남편된 양반은 이근처의 미묘한관계를 항상 살펴가면서 안해를 대할필요가 잇습니다

×

너무 의가조와도 싸움을 길게하는젭니다. 부부애를 길게 못드러나가고 또 언제나새롭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언제나 필요하게됩니다. 너무 고간에 자극될만한것이 평화로워서 자극이업는 부부생활에는 그자극을 요구하는것이 싸움저럼되어 나타나는데 이런싸움은 아모의미도업고 일종의 스포-츠라고 볼수박게 업습니다 그러니까 면스하는 폭으로 두사람이 끄려만코 방한가

운데서 경충경충 뛰다거나 또는 그외에 두사람에게 공통되는 취미를 가지고 나간다면 시시한 싸움이 생겨갈가 업게될것입니다.

신혼의 달콤한꿈으로부터 깨어나서 권태기에 드러간 부부가 디터 큰싸움을 하고나서 전보다 더다정하게되는데도 만흔것 기왕싸움을할바에는 아주 대두리로 하는것이대단히 조흘줄압니다. 상대편을 괴롭게놓고 자기도 도한 괴로움을 맛보면서 그괴로움속에 숨겨잇는 기쁨을차저내고자하는 『사디슴』『마소히슴』의 경향은 원만한 사람의마음속에 다잇는겝니다.

괴로움가운데 질거움이잇다하는말로 거기에서 새로운애정이 생긴게 좋차워보십시요

×

느긋한 애정에서 오는싸움이 아니고 다른사정으로되는 싸움도 물론 만습니다 시어머니가 심하게구러내외싸움이 되는것 경제문제로 죽살림사리로해서 싸우게되는것 어린애교육문제 큰딸얼마든지 잇슬수잇는 싸움인데 되도록 두분이 냉정하게 시집보내는데서 싸우는것… 한태도로 협의해서 리해를 기피하서야합니다.

어쨋든 근본원인에대한 리해를 엇지안코서 때리고할 어는싸움은 아무소용이 업습니다.

남편이 박게서 언짢흔일을당코 집에와서 처자들에게 트집부리는수도 잇는데 안해로서는 마주어대서지 말고 냉정하는 태도로 나가는것이 조켓습니다. 그러지 안코면 『면까다로운 남편은 울을 풀숫이 업서 화그로워 어나가 방속세게되니까요.

그외에 심히 스테리-등이 크게 까닭업시 싸움을 거는 안해, 주사가 잇는 남편은 구할수업는 싸움군으로 볼수박게 업습니다. 이런 분들은 의사의 진단을 밧는동시에 정신수양으로써 그원인을 업새는외에도 리가업습니다

남편성 딸키와 사위양자

동성동본혼인도상관업서

立案中의 新戶籍令

현재조선에서 시행되는 호적령(戶籍令)은 조선의 옛습관을 존중하야 만히 전날의 습관을 그대로 인정하야 두엇든 것인데 이제와서는 그럴필요가 업다고 하야 다소의 개정을 보게되리라고합니다. 지금 그 개정안(改定案)의 중요한 몃 조목을 든다면 첫재 안해가 남편의성을 따르자는것이요 둘재 사위도 성을 가라서 양자하자는것이요 셋재 동성동본에도 혼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중에 사위양자나 동성동본의 혼인은하고 시픈사람이하고 하고 십지안흔 사람이 안할것이니까 별문제가 업지만은 안해가 남편성을 따르는것은 전부에 시행될것이니까 실호나 조호나 모두 그러케 가게될니다. 머리를 깍는데도 조와안하도록 옛것을 지키는 분이 업지안한지라 이러한 호적령의 개정은 어떠케 볼른지 주목되는 일입니다.

안해가 남편성을

쫏는것서양은 물론이요 일본내지서도받듯이 시집을 가면남편의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제성을 그대로 가지고시집을 가는 것은 조선의독특한풍속입니다. 중국은 어떠냐하면 남편의성을 몬저 노코다음에 자기본성을 노하서집가로서 장가에게 시집간이는 장김씨 조가로서 박가에게시집간이는 박장씨라고 한답니다. 성을 둘을 쓰나마 남편의 성을 몬저놋는 것으로미루어서 그여시 본성보다는남편의 성을 치중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손문(孫文)씨의 부인이 송경령(宋慶齡)이요 료중개(廖仲愷)씨의 부인이 하향응(何香凝)이라고하야 남편의 성을쫏지아느든것은 아닙니다. 그런예로보아서는 중국도 조선과 동일한 습관이라고 볼수가 업지안습니다.

하여튼 남편의 성을 쫏거나 안 쫏거나 그것은 습관의 상위입니다. 거기 큰관계는 잇슬 리이 업습니다.

사위를양자하는것

그전에 조선서도 외손봉사(外孫奉祀)라고 하야 외손으로하야금 제사를 바뜰게 하는법이 잇섯습니다. 외손으로 봉사를 시킨다는것은 결국자연히그 전데에 잇서서 사위의봉사도 의미하는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위는 물론이요 외손도 성까지 따라 오는 것은 결코 아니엇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사위양자와는딸랄절다른 점입니다. 지금우리의 생각대로 본다면 먼일가에서 양자를 해오는이보담사위를 양자하는것이 나흘것입니다. 사위는 그래도 의로매진 자식이지만은 먼일가에서 다려 오는 양자는 그야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조선사람은 대체로 성을 가는것을 큰 욕으로 알고 더구나 처가를 위하는 것을수치로 압니다. 기려한 버릇이 꼴수에 백히어 지금도처가로 양자를들어가기를 질기지 안흘는지 모릅니다.

동성동본에혼인

하는것중국사람들은본래동성불혼입니다만은 조선은 동성에다시 동본까지 되어야 불혼입니다. 옛날 중국장수 리여송(李如松)이가 조선에 와서 리덕향(李德馨)이라는이더러 그의 장인 리산해(李山海)라는이의 성을 무른니까 리덕향씨는 동성혼인을 흉잡을까버 장인의 성을 갈아서 대답한 일도 잇답니다. 하여튼 조선서는 동성동본이면백대지친(百代之親)이라고 해서 서로 아저씨니 형님이니 부르고 잇습니다. 만일 동성동본에 혼인을 하다가는 생피라고 하야 거두를 못하얏섯습니다.

그러나 실상 외가로십여촌이 일가로 이십여촌보담 가까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외가에는 혼인을 하면서 먼일가간에 혼인을 못 합니까? 그야 물론 습관문제입니다. 이론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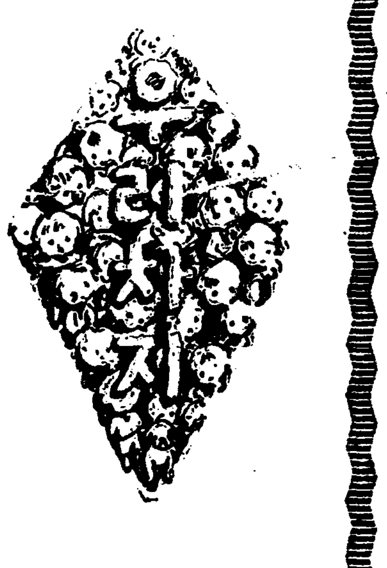
『병아리』

닭장속에 병아리
엄마등에 어써서
박그로만 나가자고
삐약 삐약

◇

엄마닭은 눈감은채
두날개 벌리고서
박게나가면 감기든다
꾹꾹 꾹꾹

(글쓴사람 전춘파)



양력에 쫏기어 자취를숨기는 음력설풍습

(1) 吳淑模

어느나라고 어느지방이고 다 그나라와 그지방의 별종행사(年中行事)가 기외통일적(統一的)으로 시행되는중에 일년동안을두고 그중하는일이만흔때가 세말과세초입니다.

우리네가정에서는 아직까지 이중과세(二重過歲)를하게되어 경제상으로고통을밧고 잇는중입니다. 조선서 양력을쓰게되기는 지금으로부터 사십일년전 즉건양(建陽)원년부터 시작이지만 인습(因襲)이란는것은 용이히근절(根絶)되지못하는것으로 일반가정에서는 아직도 예대한 애착(愛着)이만흔터에 모든년중행사를 음력표준으로해나오는것은 표준이표준인만치 세부득이 한일이라고도 불정이업지안습니다. 그러나 양력때문에 음력은 점점 쫏겨드러가는이만치 음력설풍속에도 차치자취를 감추어 가는것이 만습니다.

묵은세배

섣달그믐 어스름저녁부터 일가친척이나 친한어른께 차처뵙고 묵은세배를드리며 집안에서는그믐저녁에 사당에문안을드리고 나와서 어른에게차레로절을합니다.

묵은세배를합하면 일년동안 편히지낸것을 치하하는인사요, 또한가지는 다만하로저녁 지나 야하룻 이를통하한 새해의행복을축수하는뜻도잇습니다.

사람이살라면 남의신세도지고 은혜도입고 남을생각도하고 그리우기도하고 걱정도하고 넘려도하게됩니다. 하며 곤고(困苦)를나누다는그것이 동정이요 친애(親愛)요 우의(友誼)가아니겟습니까.

세월이꼿꼿하다지만 일각삼추의 약약한날을보내는 이도잇고 산중(山中)에 무력일(無曆日)이라고 지리하고도 고달픈 생애를 겪거오는이도 잇습니다. 일년삼백육십오일을두고 일초일초마다 닥치오는 아프고 쓰리고 때저린세간고에 부다기며 날을보내니 어찌유심(有心)치 아니하겟습니까.

이 오래고 지리한을 글을끗고 너머가든 『그몸』이니만치감격(感激)도 회오(悔悟)도 기쁨도…… 모든의식(意識)도 기렬가진정회(情懷)가 졸포수름러레지듯 이날에 가장만흘것도자연이겟지요.

그러니 내내 첫재안흘지못지안흔 사람이라도 이『그몸』에만은 생각하고싶습니다. 하물며 은혜를입고 지도를 바든선배(先輩)에게서랴. 은혜를 잇지안는다면 벌서 반성인(半成人)이나 진배업습니다.

아아 모든것을 일롱지라도한 친구가 가지고 십습니다.

×

근래와서 이묵은세배의 형식이 변해서 일종날리—랑범위로 해하게되는것이 연하장(年賀狀)입니다.

복조리

그믐날밤으로부터 정월초하로날 식전까지 서울거리에는 복조리장사가 『복조리사오 복조리!』하며 조리를팔러다닙니다. 이풍속이언제부터생겻는지는 모르겟스나 조리로서 쌀을이르듯이 재액(災厄)은 새여나가고 복은건진다는상징(象徵)일것은 추측하야 알수가잇습니다 그런데 복조리만치 부르는갑을다주고사지 한푼이라도 깍거서는 손복(損福)을한는것이라는 말이잇습니다 요새와서는 그러치도안습되다만.

×

황금(黃金)은 광석(鑛石)의멧만분의일, 내지멧십만분의일로석겨잇는것을 파내여깨치고 바수고 일어걸지고 씻고 다시이것을녹여서 분석(分析)한결과에엇는것이요 쌀은 씨를뿌려서 모를내여 김매고 거두고 추리고 홀고 라고 닥기고 씻고 일고 걸러서야 겨우밥을짓게되는것입니다 무엇하나 노력업시 갈업시 힘안드리고 애만쓰고 편히 오는것이잇스리까. 갈을악기지말고 힘을야투지말고 애써일하는자에게 복이오리라는 교훈으로알것입니다.

第九回京城 ACWY 主催

女子懸賞歌闘大會

日時 二月十九日밤七時
場所 女子基督靑年會館
會費 三十錢

短篇小說

抗進記

(五)

金廷漢 作
鄭玄雄 畵

굴세요.』 동풍 영애를 생긋 보이며,

『하지만 누가 그러케 쇠잣을 자나요! 미리부터 그런 열려도, 아닌게아니라 좀 잇섯거던요.』

『그래서 어떠켓소?』

『뭐, 어떠케할게 잇소. 꼿 때치고 나와버렷죠.』

『하여튼 큰일날번 햇소!』

『까딱햇스면!』

영애는 완전히 본성에 도라젓다. 그는 아닌 방중에 외간남자의 방에 안잣다는것도 생각지 안코, 더군다나 거기에관한 이야기매도 불구하고, 벼룩콩만치도 부끄러움이고 꺼림이고 업시 악려노앗다. 요새게집애라건 원래 요런겐가 하고 두호는 속살로 놀라지안흘수업섯다.

『그것보시오 저가 가랄때 그만 갓스면 애초 그런 변이업지요 괜히 질것이 부러잇다가……。』

두호는 적이 꼬집어 주엇다. 영애는 다시 고개를 숙인다

두호는 영애의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헛소린지는 똑똑이 알수가 업섯지만 어째도 잇슬만은 빼앗겻시에 영애가 급작이 내던진허술게라고 생각되엿다. 그와 동시에 영애가 급작이 내던진허튼게집으로 보엿다. 요새 말로 고등갈보로。—두호는 마침내 아리숭한 불쾌를 느꼇다.

『그런데 여긴 뭘하러 왓소—?』

말귀가 별안간 빽빽하게 빗난다.

그러나 영애는 예사롭게 바드며, —

『자러왓지요.』

『자러?』

『네』

『어디 잘방이 잇서야죠?』

『이방에 자죠?』

『이방에?』—두호는 맏부당한듯이

『어쩌라구요?』

『가치 자죠. 상관 잇나요』—

영애는 털끗만치도 꺼림한 비츨 보이지 안코서, 『전 이쪽구석에 잘테니깐요』

두호는 기가맥혀서 말이 나왓다. 더구나, 영애가 자기는 외가저 이 기기이게 무슨 이야기가 잇서서 온것이 아니고 다만 진날 나막신 찻드니 자기를 리용하기 위해서 왓다는 것을 생각케 되자, 한갓 떫음과 고소가 떠오를 뿐이엿다.

『안돼요―?』

영애는 쌀쌀하게 우스면서이쪽 눈치를 살핀다. 그의 눈은 애원한다기보다는 원망스런 비츨 감추고 잇섯다.

두호는 잠간 이상한 유혹을 늣겻스나, 이내 그러한 감정을 억제해가면서, 아든정든된정 다업시 딱딱하게 거절햇다. 그리고서 자기의 취한 냉정한 태도에대해서변명이나 하는드시,

『부모가 안다면 큰 낭패나지오. 그리고 또 소문도 무섭거던요. 싸고싼 향내도 난다고』

그러나 한번 맺치면 풀리지 안는 두호의 그 태도에는 변함이 업다.

영애의 함품한 눈에는 점점 원망의 빗치 드러낫다. 그러나 그다지 매운것은 아니엿다 오히려 쓸쓸한 편이엿다.

『그럼 가겟서요!』

영애는 두말도 업시 이러섯다. 그리고 무색하다든지 창피스러운 비중 자갈도 보이지 안코, 박그로 살아젓다.

두호는 창졸이 마음이 어두워젓다. —영애를 보낸 섭섭함보다 영원히 영애를 일허버린듯한 아까움이 훨신 컷다.

(왜 영애를 보냇슬까? 올퀸 글쿼건 결국 저기를 차자온것이 아니든가?……)

두호는 기왕 업질은 물인줄은 알면서도 부질업시 자기를 나무라지 안흘수가 업섯다. 그리고 그를 보낸것이 자기를보나 영애를 보나 결코 이익이 업다는게 더구나 영애를 다시 그 음흉한 칠촌아저씨의 손에 넘겨준것밧게 되지안햇다는것을 깨닷게 되자, 자기의옹색한 마음이 그지업시 미워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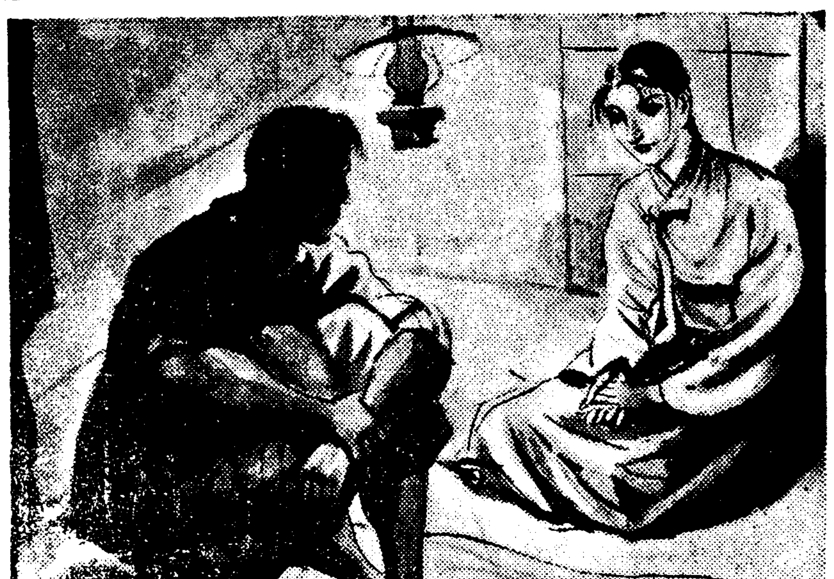
그러나 그와 동시에, 두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와 정반대의 생각이 자리잡고 잇슨것도 사실이엿다.

하지만, 그는 하여튼, 영애의 신변을 생각할때, 두호는 도저히 그자리에 우두커니 안자서만 마음을 부빌수가 업섯다. 그는 곳 영애의 뒤를 차자나갓다.

다행히 그의 칠촌아저씨는 박갓사랑에서, 태호와 함께 코를 들들 골고잇섯다.

두호는 겨우 맘을 노앗다.

그리고 재미 안타가 서툴은 쇠도적놈처럼 어깨를 잔뜩더 웅크리고는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영애가 거처하는 안사랑 아페까지 가보앗다. 그러다 반드시 잇서야할 정게가……



死亡率の高い

幼兒の流感

小兒

發熱이되거든直時오인을!

(第一安全하고有効한手當은이것이다)

胃腸型이만흔 小兒의感氣熱에는强한어른의藥은胃腸을더거칠게한다

꼭『오인』을

오인은幼兒의體質에맛고

小兒의感氣熱、肺炎、流行感氣、百日咳、痲疹其他諸熱에 安全하고 먹기조코 슬슬熱을 나리는理想의良藥이다

オ 오 イ 인 ン

(定價二十錢슈一圓迄)

發賣 丹平商會

各地藥店에잇소

어른의감기열기에

안치피린

アンチピリン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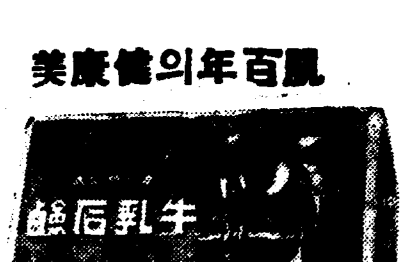
流行性感氣에는特히安全良効

우유비누는거품이잘일어
나고皮膚를保護한다!·
그향긋한香氣는紳士에게
다시더업는上品이다

本舖 大阪 共進舍石鹼株式會社

肌百年의健康美

牛乳石鹼



洗面에·入浴에·面刀에

紳士가질가비누는이것

No. 815

技巧主義의檢討
文壇의動向과關聯시키어 【5】
韓雪野

그럼으로 高度의心理小說에잇서서는 그作中에 表現된作家의心理가 반듯이 現實性에 힘차게肉迫하는것이다。即作家가 훌룡한 心境小說을쓰기爲하여서는 于先

現 實을 라디칼하게把握해야하는것이며 그래야 그心理小說이 現實性에符合될수잇는것이니 여기에 現實을 한번뛰어넘어 現實을 再構成하는 뿌작크的通路와 方法이 잇는것이다●

即 作家가 現實的인 實踐生活로부터떠나서 한개의自我를中心으로한 觀念과關照의世界를展開해노코 現實的 歷史的世界를 그自我의觀照的世界속에다가 情意的、心理的으로 關誘하기爲하여서는 歷史와 現實과 人間生活을 一層더 本質的、內容的、批判的으로 把握해야하는것이다 그래서야 비로소心理小說은 主觀的、情熱的이면서도 同時에客觀的、冷徹的일수잇는것이다。또그래서 이루어지는 個人의心理만이 『一般性、普遍性』을 彷彿케할수잇는것이다。

두말할것업시 이러케『客體的現實性』을作家의 自我內에內包하여서만 비로서『主體的眞實性』이 可能한것이며 또이러케『客體的現實性』과『主體的眞實性』이

統 一되는곳에서만 文學的眞實이 생겨날수잇는것이다。

그리고 이『眞實』이 업는곳에는 眞正한藝術이 잇슬수업는때이므로『眞實』은 決코 寫眞的眞實에만끈치는것이 아니다。內包된 血肉과體臭와 呼吸이 外部的、客觀의光線과溫度를 가진『眞實』이여야하는것이다。

即이른바 大衆小說이 寫眞的眞實—다시말하면 어떠한現象을 表面的으로 如實히 그리엇슴에도 不拘하고『本質的眞』에까지 高揚되지못하기때문에 그것은 眞正한意味의 藝術과 區別되지안흘수 업는것이다。日前어떤紙上에서 所謂이름난 文學評論家라는 사람이『아무리 寫眞主義하더라도 寫眞과가티 그릴수업다』하야 寫眞을보다 놉게치는 妄論을 말한것을 보앗스나 이것은 今後내가쓰려는『藝術性』에對한 問題와또는리아리즘에對한 討究에서 좀더 具體的으로 論述하고저한다。昨年度에某報紙上에

發 表한『通俗小說에對하야』라는論文과 그後에某誌에發表한『長篇作家會議』의 答辯中에서 若干 이것을 비친일이잇스나 매우不足한點이잇섯고 또이것은 至極히 重要한問題임으로 後週를보아 再論하기를約束하는 바이니와 文壇各方에서 이 問題를 眞摯히 討究하엿스면하고 나는希望한다。그리함으로서 반듯이 文壇動向은 조흔方面으로 키ー를돌릴것이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어쨋든 나는文壇傾向의 重要한現象으로서 技巧主義를 豫想하고잇다。勿論 이러한傾向은벌서부터잇서왓고 또그것을 이미指摘한일도잇스나 하여튼 今後더욱그傾向이 기퍼질것을 나는 疑心치안는다。또 이러한傾向이 文學作品에서 健康한現實性을 더욱 去勢하고 心理主義的인 狹路로나아갈것도 이미내다보이는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는 決코 여기서 絶望을 늣끼고 그絶望에 그치려하지안는다●

人間에게 잇서서 文學者에게 잇서서 가장 미덤직한同伴者는

歷 史요 現實이다。歷史와 現實은 眞實로生을求하고 活路를찻는사람에게 비록一時의 不運과痛苦는 줄지언정永遠한 死滅은 주지안는다。

그러나 哀惜한것은 人間이그리고 作家가 그唯一한現實과歷史를 모르고 同時에 거기接近하려하지안는 그것이다。

우리는 決코無謀히 이切迫한危機下에서 놀라운 大作을 空想하는者가아니다。身邊小說을 써도 無妨하다。다만 要는 上述하바와가티 그心理로 하여금『主體的眞實』이되게하기爲하야 人間의永遠한同伴者인 歷史와現實에 卽한 客觀的現實性에로 接近하여가지 안코는 안된다라고나는 생각할뿐이다。

그럼으로 作家는 무엇보다 첫재 眞實을똑바루보는 조흔눈을 가저야 할것이다。暗黑이나도록 어지러운오늘의現實임에、作家는 더욱 밝은눈을가질必要에 切迫되여잇는것이다 (完)

新民謠의 精神과形態 ③
乙巴素

新民謠의『템포』

템포(Tempo)는 民謠의 重大한 要素의 하나다。

民謠를 蒐集하노라고 淸州어느 山村에 宿泊했슬때의 일이다。

부억에서 그집 女人들이 뫼밀방아를 찟노라고 떠들석하고 잇섯다。나의 旅行의 目的을 아는 主人은 그때 문득 생각나는듯이 노래하야 주엇다。

찟는다 찟는다 뫼밀쌀 찟는다 뫼밀쌀 찟는다‥

세ー모 번ー뜻

仔細히 觀察해보면『세ー모』『번ー뜻』가튼 句節을 二音을三音으로 延長까지하야 쿵다쿵、쿵다쿵하는 방아소리와 三音에 一致시킨것이다。

나는 그때 새삼스럽게 民謠에잇서서의 템포의 重要性을 體驗한 일이잇스나 그러면 新民謠는 如何한 템포를 보이고잇는가?—그것을 理解함에는 무엇보담도 新民謠의 基調가되는『時代性』을 吟味해볼 必要가잇다。

過去의 民謠의 템포는『쿵다쿵』하는 방아타령의 歌詞가 三三調인것처럼 모든다 必然的이며 絶對的이엿다。그時代의 民衆은『民謠로 生活하고』잇섯든것이다。民謠는 生産關係의 藝術이엿다。그러나 新民謠는 消費關係의 藝術이다。生産樣式의 發達이 生産階級의 民衆에게도 [illegible]的關係를 준것이다。[illegible] 支配的被支配的關係만이 가지고잇든 剩餘閑暇를。

그러므로 新民謠의 템포는 民衆의 生活의 템포와 一致하지 안하도 關係치안흘것이다。現代의 民衆은 民謠로 生活하는것이 아니라 剩餘閑暇에 民謠를 享樂할 뿐이다。文化史的으로 衆愛스럽지못한 現象이라하겟다。生活의 템포와 一致하지안하도 無關한 新民謠는 여러가지 意味로 現代의『時代性』을 表現하면 그것만으로 民衆의『비위』에 맛는 모양이다。三三調、四四調、아리랑調等 모든 過去의 調子를 完全히 脫皮하고 七五調等의 歌謠調子를 無條件으로 承認하는 新民謠는 所謂 民謠調(土民民謠調)와는 全然無關係하게되여가는 모양이다 非鄕土的인現代社會機構에서 非鄕土的 民謠가 出産되는것은 當然할것이며 鄕土性의 敗北와 時代性의 勝利는 템포우에도歷歷한것을볼수잇다—

나는 民謠를 象牙塔속에 求하기를 실혀한다。街頭의 流行歌『나ㅡ제ㅡ조ㅡ숑』中에서 收拾하려한다 農村中心인 中世的社會가 아닌 今日의 都市中心인 社會에서는 民謠의 溫床은 不可避로 都市의 街頭가 아니면 안될것이다。

流行歌라는것은 傳播狀態를이름이지 詩謠의 한 種類를 말함은 아닐것이다。流行歌中에는俗謠도 歌謠도 民謠도 小曲도잇슬것이니 그中에서 民謠를 收拾하겟다는 말이다。

女子치마 짜르고 남자바지는
한자두치 넓어로 나팔통일세(岸曙)

自他가 流行歌로 認定하고잇는 이歌詞를 구태여 新民謠의 例로드는 까닭은 卑俗性은 卑俗性대로 두고도 그안에 넘처흐르는 時代性을 通하야서의人間性 民謠的人間性을 看過할수업기때문이다

一漢詩一

題 松
押 松
桐岡 考選

佳作一之十
府內苑西町七二
心醫 趙洵元

勁葉危枝秀古松
陵寒原不怕玄冬
風霜閱刼千年壽
人世需材衆木宗
流水頻傳琴韻廻
閒雲常護鶴眠濃
如今均被栽培力
一色靑蒼處處峰

樹木 (下)
李泰俊

一實‥心‥樓‥閑‥題二—④

그러나 나는 가끔 얼마의不滿을 갓는다。내 澁滯이지모르나 그전主人들이 적은 나무 여럿을 심엇슴을 遺憾하지못한다。나는 떠업는것을업더라도 잣여러나무보다는 큰 한 나무 미테 서보고십기때문이다

나무는 풀수록 조타 그리고 獨立수록조타。잔가지에 꼿치피거나、열매가 맷저 휘여질 에그람다번 바라볼만한 풍치를 모름이 아니로되 그러케 내가 쓰다듬어 좋수잇는 나무보다 나무그것이 나를 내 집과 마당까지를 휘덮어주어 나로하여금 한 어린아이와 가티 동그런눈으로 늘 내自身의 너머나 적음을 깨달으며 공손스레 그의 미를 거닐수 잇는 한 뫼뿌리처럼 놉고 숭고 나무가 그리운것이다。

實人、風格이 살던 마을이나 그들이 거닐던 마당에는 흔이들 큰 나무들이 선것을 본다。淸陰에 李忠武公이 사시던 마을에도 그가 활쏘던 언덕이라는데 銀杏과 가티 웅칭히 솟은 두채의 銀杏나무가 우뚝 枯木이 되어서잇음을 보앗다。나는 忠武公이 쓰시던 칼이나 활이나 어느 遺品에보다 더 한雙 銀杏나무에 더 반갑고 머리 고개가 숙어젓다。

놉기는 하엿스되 아직 살기는한 나무엿다。말이야 잇건 업건 忠武公께 더부러 한때를 가티한것으로 아직것 목숨을 가진者ー로 두그루의 銀杏나무뿐이다。

나무는 긴ー歲月을 보내며자랄대로 자란다。워낙 선곳이언덕이라 여간 風傷으로는 쓸매를처 그어ㄴ 나무의 머리도 볼것가티 안엇다。이러케 놉고우람한巨木이기 때문에 조앗다。아모리 忠武公의 손수심으신것이라하여도 그나무가죽엇스면 상나무나 쑥나무로 되엇을것이 石假山의、銀杏거리나 될것이 엇스면 黃엽배 조흔도엇을것이다大武人의 面目다가 嚴正에 오독 솟기를 山峯오리처럼 하엿스니 반갑고 머리가 숙어진것이엿다。

○

다못 한그루의나무라도 큰 나무 미테서 살고십다。입맛을 다시며 나은 果木새이에주춤거림보다는 비이마음 인거룩으로 오직 淸風이 돌고날뿐인 회영청한 엣나무아래를 거닐음이 얼마나 더高尙한 趣味이랴 여름에는 바다 가튼 그 깁고 푸른 그늘속에 살고 가을에는 마당마 지붕이 온통 그의 落葉으로 무처보라 얼마나 호뭇한 秋收리요 겨울밤에는 바람소리 바람소리도 큰나무에 선큰소리일것이다。最大 風琴의 振動일것이다。실낫가튼목숨이나마 그런큰 나무미테 쉬어、먼ー한둘의 별비를 바라보며 人生을 생각하고 시픈것이다。(丁丑正月下澣)

漢詩募集

題‥‥新春
押‥‥新
限 二月十五日
(薄謝進呈)

學生作品
"隨想" 港口의哀愁【上】
中專 崔琴桐

하로종일 기달려야 갈매기한마리 볼수업고 기른배스노래한마디 드를수업는 이런港口와는 일즉이질겨논記憶이업다。내가살어야 할港口는 저 南國의 내故鄕처럼 함박눈송이가티하얀 갈매기들이 제날개를 물속에비처가며 막 부리고 백금가루가튼 하얀 모래밧이잇고 그리고 동백숩이 잇고 또동백기름 조와하는處女들이 살고잇는 그러한 浦口래야 한다。暴風이자저도 조타。波濤ㅅ소리가 노파도조타。샛빨간 동백꼿처럼 熱情的이면서 새하얀갈매기가티그저純眞만알고 그러고도 돗그림자처럼 한엽시 고요만하다면야 나는 상관업는것이다。

激浪에 시달리고 暗礁에 부디치며 흘르고 밀려서 갓득이나 쓰라린 내運命의배는 이제다시 仁川港의 所謂家庭敎師라는 波止場에 고달픈닷을나리고 暴風을 막는것이어니와 만남과離別이 하 자즌港口이니 이도 잇기에는 나는 이미 철이들엇다—허니 말이다。나는 이港口와 어서離別하고시펏다。怒濤가 이를갈고 狂風이 아우성을 치드라도 나는 이港口를떠나저 限업는 바다로만 사뭇내다르고시펏다。그리하야 新聞配達이다 行商을—그리고 또 만주장사 시못하더라도 化粧品이나 藥品를해서라도 나는이港口를떠나고 시펏섯다。

옛날 高句麗때에 東明聖王의 아드님沸流는 사람이살려면 바다스가가 조타고 그의아우溫祚와갈리고 當時彌鄒忽이던 이곳에올가려서 나라를세웟스나 그歷史업마가지못하고 悲運에잇으릇다 하거니와 果然仁川은 나라를세우고 太平乾坤을 을조리기는 못된다하엿다。휘人파람을불면서 또는 思索에잠기어서 팔장을끼고 街路樹미티라도 거닐만한 거리하나 못가진仁川이다。거리거리 골목골목 人間의情操는 불꺼진機關처럼 락 식어고 詩人은 할머니乳房처럼 靑春의 노래를 이젓다。모든것은 나에게 술잔만을 주엇다。萬若、아 萬若이港口에 萬國公園까지 업섯던들 하마트면 나는그대로仁川의 詩를모르고 말엇슬것이다 파면 萬國公園은 仁川의貞操엿다。그는 그만치 所重한存在라아니할수업섯다。이公園에만오르면 무한이 펼쳐지는하늘과바다가잇고 시원한바람이잇고 그리고배人煙氣와 돗그림자가 잇는것이 내故鄕과 恰似한느낌을주어서鄕愁에저린 나의가슴을 좀더 외롭게하는것이 조앗다。틈만잇다면 한중일이라도안저서 이런것들을 바라보며 空想의 파라다이쓰를 활게치며거려본댓자 누구하나 탄할리업고 꺼릴것업는것이 그지업는 幸福이아닐수업섯다。정말이지 먹지안코입지안허도 아수울것이라곤 나는、업슬것가탓다。그래서 나의 熱情은 機關車처럼달리엿다。더욱이 귀고리의 那美를 알게되면서부터는 仁川에對한 온갓 不平과 明呪를 모두 默殺해도 나는조앗다。그건왜? 那美에게는 동백꼿처럼타는熱情과 갈매기가튼純眞이잇고 그리면서도 돗그림자처럼고요함이 함뿍깃드러잇섯기 때문이엿다。那美와 나와는 이公園의숩 그늘에서 만낫섯고사권지 두달이 채못가서 우리는 또다시 이公園에서 흐적도업시 갈리고만것이다。그것은 이公園에 매미소리도 차차 식어가려는 어느黃昏이엿다。나는 그날도 긋업는 瞑想에잠기어서公園의숩길을 거닐고잇섯다。어느 히스테리칼한 儒家의작난인지港口는 함부로 亂雜하기짝이업섯다。곰통어벅큼가튼 연기를피우며 드나드는발동선、고래가티코고는汽船、파(巴)밧가튼돗대、섬섬、나는이런것들을 바라보며 숩그늘에서잇슬때 오랜지빗저녁바람을타고 저 未知의나라로부터 온듯한 열대여섯난中國少女를 그리멀지안흔 藤넝쿨미테서 나는 보앗다。그리고 그의自然스러운 態度로보아 散策을 나온것이라고 나는미덧다。그는 멀건이黃昏이모라오는바다를 로맨틱하게 바라보고잇는것이엿스나 그의눈에서나 呼吸에서나 조곰도 답답한기색은 나는볼수업섯다。나는그다음날도 亦是公園에서 그少女를보앗다。그리고 그다음날도…또그다음…그다음날도 그는 이르고 입이려고 턱이빠르고잇색이하얀—마치西洋人形처럼 생긴少女를 나는보앗다。그리고서로 눈에익엇다。그리고黃昏에만 나오는 그少女의 별가티반짝이는 두개의 귀고리를 나는이즐수업섯다。어느날 하늘은 흰구름한점업시『코발트』비초로 시원스럽게개인 바로 그날이엿다。나는낙시대를메고 小月尾島까지나갓섯다。그날은 물이너무맑은탓인지 고기가 잘물리지안헛다。그래서 몃번이고 자리를옴기어 바위를돌아가다가 나는 참말우연이도 그 귀고리의少女를 또본것이엿다。그도 낙시질을 나온모양인지 낙시대를잡고 물끄럼이 물속만드려다보다가 내발소리에 잠간얼굴을처드는순간 그는까닭업시 당황해하며 얼굴을약간붉히고 방그레웃는것이다。생깜안리봉이달린 하얀 밀집모자에역시 산뜻하게 하얀양장을한 그의맵시가 오늘따라한층 서양인형다워보엿다。나는 그의겨트로가까히 닥어서며

『만히 낙것소?』하고 비로소 서투른 중국말로 말하엿드니그는 나의뜻아닌중국말에 그만반색을하며

『아이 통모낙것다우』하고 한번더 생그레 웃는것이엿다。나도 그의겨테 안저서 낙시를잡그긴하엿스나 공연히 낙시질하기가 실혀젓다。少女도 낙시질은 그만둔듯이 호박순가튼발을 물에담그고는 太陽에醉한 붉으레한얼굴을들어 낫잠에 포근한 水面을 멀리노려보고만잇섯다。그래서 나도낙시대는 바위틈에끼워노코 그와함께놀기로하엿다。少女의故鄕은 바다건너上海라하엿다。여름放學을타서 이곳에서 商業하고잇는 그의아버지께 놀러온것이라하엿다。

우리는 이야기가 퍽도만헛다 점심때가 겨워서도 우리는 시장한줄도모르고 놀앗다。

今春各學校入學規定 ⑬
(但詳細는直接問議하시오)

水原公立農業學校
▲募集人員 約五十名
▲申請期日 二月末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一日至三月十五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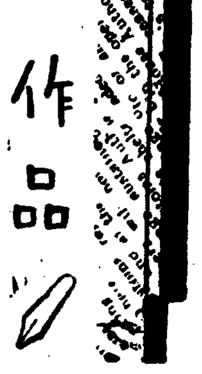
仁川公立商業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二月末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六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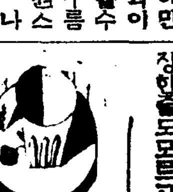
朝鮮總督府鐵道從事員養成所
▲募集人員 約四十名
▲申請期日 三月十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二十二日至三月二十四日
▲試驗場所 鐵道員養成所
▲試驗科目 國語 算術

東興中學校
▲募集人員 約百五十名
▲申請期日 三月三十一日까지
▲試驗日字 自四月一日至四月三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明倫學院
▲募集人員 給費生約二十名 自給生若干名
▲申請期日 三月十五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廿九日至三月三十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東星商業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日 自二月一日至三月十日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至三月十六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 算術





【問】 小生은 今年廿二歲의男兒이온대 昨年에當地私立中學校(三年制)를卒業하엿읍니다 小生은 本來法學에趣味를가지고잇서요 然이나 京城法專에는 入學이不可能할것입니다 小生은 只今부터 어떠階段을밟버야成願할수가잇슬가요 京城에는 法學에對하여 修業할敎育機關은 따로업슬넌지요 下敎하여주옵심을바라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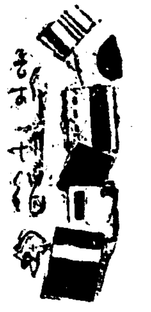
【答】 早稻田大學出版인 法學講義錄을보십시오 東京가튼데가서 私立大學專門部別科가튼데 入學할수도잇습니다 (學藝部)

【問】 一、株式會社나 或은合資會社創設에對한 一切의知識을詳細히알려면? 二、朝鮮總督府濟生院이란 엇더한資格을 養成하는곳입닛가? 平北 大東生

【答】 一、商法提要가튼 冊을사보시오 一、盲啞人의 敎育을爲한學校입니다 (學藝部)

【問】 東京市澁谷區幡ケ谷原町八〇〇日本高等鐵道學校가 確實이文部大臣認可를맛는 學校입니가 그리고內容이充實하온지 詳細한上顧問欄에下敎하여주시요

【答】 그學校로 直接問議해서學則을갓다보시지요 (學藝部)



▲게자씨 二月號 發行所平壤府新陽里六五의六 게자씨社 振替京城五三三一番 定價十錢
▲ホーム・ライン 二月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ホームライン社 振替東京一二二一番 定價十錢 送料一錢
▲慶北佛敎 第八號(月刊) 發行所 大邱府德山町二六一 慶北佛敎協會 定價一部五錢
▲靑年 二月號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振替京城一〇三二八番 定價十錢
▲時兆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淸涼里町 時兆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錢
▲高麗公論 二月號 發行所 開城府東本町 高麗公論社 振替京城五〇二九番 定價一部十錢
▲基督敎報 第九十三號(週刊) 發行所京城府西大門二丁目八九 基督敎報社 振替京城一二五九〇番 定價一部五錢
▲農村文化 一月號 發行所京畿道 定價一部二錢
▲野談 二月號(內容) 御前의쥐 팔은어디로 雪錦子 男妹정은 고 讀史漫錄 最近六十年秘錄 全譯三國遺事 數奇한곱사등이 火賊李弼 狂公子 빗나는文曲星 乙丑三百年 史片二個 拾金 外時調 노래等 發行所京城府鐘路二丁目四五野談社 振替京城一一八三八番 定價三十錢
▲高麗時報 第五十九號(每月二回)發行所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一部五錢

科學
研究途中에잇는 人工雪의結晶
趙相文

人工雪의 結晶을 만드는것은世界各國의 學者들이 벌서부터 여러가지로 試驗해보앗스나 별로成功하지못하엿다 그래서 눈의 結晶은 매우不安定한것으로 實驗室에서는 좀처럼되지안는것으로 되여잇섯스나 다만 米國의『칼리포르니아』大學의『아닷스』敎授가『水蒸氣와冷水蒸氣를 混和해서 매우 적은눈의 結晶이라고할만한것을 만든일이잇는데 이以上 더進展하지못하엿다。

그러나 人工雪의 結晶方法은 天然雪이되는 條件을 본떠서만든다는 가장 平凡한方法이나 結局은 그것이 最良의方法이엿다。우선 硝子의大筒을 垂直으로해서 그미테 물을붓고 電熱로서 任意의濕度가 保存되도록한다。그리고는 上部에 適當한무엇을달고서아주가늘은 머리칼을달거둔다。全體를 低溫室內에서 零下三十度쯤 되도록해두면 미트로부터 自然對流로 올려간 水蒸氣는 이머리칼에 凝結해서 눈의結晶이 長生하는것이다。

이러한 境遇에서 가장 問題되는點은 水蒸氣가 머리칼의 全長에 亘해서 一樣으로 凝結하면 서리(霜)의 結晶이되여서 머리칼全體가 毛虫과가티 氷針에 덥피고마는것이다。그럼으로 어느一點에만 어롱의 적은結晶을 凝結시키고 그結晶을 核으로해서 눈을成長하는것이니까 其他의部分에는 水蒸氣가 凝結되지안토록하는것이 매우 必要한것이다

이核을 適當히만드는것이이 實驗의 가장 困難한點으로서 여러가지로 試驗해본結果 어떠한때라도 눈의核이되는것이라고 알려지게되엿다。

우선 머리칼을 充分히 乾燥시켜둔 그것을 五酸化燐이 드려잇는 乾燥器에 미리부터 數日間너허 두는것이조타。만약 머리칼이 多少間이라도 濕氣가잇스면 全面에 어롱의 核이되는 때문에 미트로부터 올려오는 水蒸氣가 一面으로 凝結되는때문이다。다음으로는 미러잇는 水滴이 노든때문에 올려오는 水蒸氣는 結晶이되는 濕度에比해서 顯著히 過飽和狀態에잇다。이過飽和의度를 더하면어떤時期에 이르러 머리칼에 核되기는하나 過飽和度를 더하는데 妙하게잇서서 너무 急히하면 머리칼의 全面에 서리가되여붓고마는것이다。그러므로 아모리 時間이만히걸려도 大體로 머리칼을 너허서한時間 以內에 核이되여붓도록 미러잇는 水滴의 올르는것을 調節하면 第一조흔 結晶이되는것이다。

結晶이되게되다음에는 그結晶이되는데의 濕度와 水蒸氣의 過飽和의度와 對流에서의 水蒸氣의 供給狀態를 잘 調節하면 任意의形態로 結晶이되는것이다。

이러한 人工雪의 硏究를 잘 進行시키면 나종에는 降雪할때의 上層氣象狀態를 地上에서 보는 눈의形態로서 推測할수가잇슬넌지도 몰을것이다

―終―

(寫眞은 人工雪結晶)

家庭醫學

姙産婦의死亡 一年間에六萬人
惡阻、浮腫、產後의衰弱을 防止하는新生物劑

朝鮮에잇서서 一年間에 婦人의全死亡者六十萬을헤이는中에 約一割인 六萬人은姙娠婦라고한다 元來姙娠을하는婦人은 그만한健康狀態가良好하면이며 이

影過한死亡率에는

놀라지안을수업스니 엇재이와가리死亡者가만흔가하면 姙娠은勿論病은아니나 姙娠中에여러가지病에걸리기쉽고 病에걸리면平常時보다도病이 重하든지곳치기어려운것이 通例인까닭이다

또한오래동안알라가 씨슨듯이낫다고하는 結核이姙娠中에다시再發하는일도만코 이것이死亡率을 도치고잇슴은 말할餘地도업스나 는病도만히잇다。

特히姙娠中에걸니

惡阻는其中에하나로 姙娠百人中八十人은걸리는데或者는그것을姙娠했슬때依例히잇는것이라고生覺들을하야重大視하지안는일이잇스나重해지면은姙娠婦입까腦에까지 밋처生命을 빼앗기는 例가만타

그原因은 胎兒나胎盤에서 생기는毒素의作用으로볼수잇는데비타민B의缺乏이이에密接한關係를가지고잇슴을알게되엿다元來비타민B는脚氣에만特効가잇는줄아나其他에도非常히 複雜한作用이잇슴으로 即胃腸을强壯 胎兒의發育促進作用도잇고 特히드러나는것은 解毒作用으로 이것이胃腸이나肝臟에서 活動을하야 惡阻를鎭定식힌다。

[illegible]로 イノシユリン社 [illegible]는데우수[illegible] イノシユリン마가튼成分으로[illegible]하야서 效果를보는 구[illegible]의[illegible]分이비타민B와함께、サカロミセン[illegible]이다[illegible]わかもと[illegible] 것을[illegible]わかもと[illegible] 하야 [illegible]이 近來

非常히推奬되고

잇는中이다。

그러고姙娠中에[illegible]거하면、[illegible]에 도[illegible]가되며、[illegible]하게하고、[illegible]는데우[illegible]바지며、모[illegible]中에 는[illegible]키는힘이자조잇서、[illegible]이原因이되여、[illegible]、[illegible]하게되는데「錠劑わかもと」에 는[illegible]의性酵素가잇서、消化를조케하고、[illegible]을[illegible]하게하야[illegible]、利尿를[illegible]으로浮腫도막을수잇스며特히脚氣에 는비타민B가[illegible]으로퍽조타 또한A、D、E等의各種비타민、脂肪、蛋白質、칼슘等의無機物其他의資[illegible]을[illegible]하고[illegible]弱으라어 胎兒의[illegible]을[illegible]으로姙娠中에[illegible]하게하야 [illegible]解를安産하고 産後의살이[illegible]도빨니[illegible]하게하는데는 [illegible]한適切한藥이다。

惡性感氣의秀節
兒孩들의注意에는

추위가더하고 매운바람이몸시불면 抵抗力이弱한 兒孩는조고만한不注意로 感氣에걸리고 重症에빠지기쉬읍다

感氣는 一般으로極히 漠然한病으로들아나 事實은各種의病菌의感染으로생기는 鼻가다루 咽喉가다루

氣管 支가다루等을말하는呼吸器上部病의 總稱이다

그래서 코人물이나고 咽喉가아프며 몸이추어지면서 熱이發하기도하는데 더욱이注意할것은感氣가原因이되여 예전부터『萬病의元』이라고함과가티 여러가지餘病 特히兒孩에는肺炎 結核等을 惹起하기쉬움으로 警戒를하지안으면안된다 感氣에備하는育兒法의要諦는 體質의改善 病菌에對한抵抗力의 充實로 그手段으로는 무엇보다도 榮養의增進이第一이다 이것은腺病質의

胃腸 이弱한兒孩가 特히걸리기쉬운 事態로

보아도 肯定할수잇는일로 榮養이充分치못하면 血液의循環도낫부며全身의機能도衰微하야抵抗力이弱해지며 바람늘조곰쏘이여도곰방感氣에걸리게되다 또動物實驗等으로證明한바와가티비타민D가缺乏하고보면 肺炎에걸리기쉬고 또한A나B가不足하여도 體組織이弱하게되는것도事實임으로 이點도特히 注意하지안으면안된다 그런데 비타민은 A나B나D라고함과가티 各種에이르러包含된것에

生物 製劑『錠劑わかもと』가잇스니 이것으로도

한胃腸을强하게하고 食物의消化吸收를조케할뿐아니라 한가롭더나가 弱한胃腸과身體의 全細胞를强化식히며 血液의循環을活潑하게하는獨特한活動도잇다

그런고로『錠劑わかもと』를小兒에게服用식히면 全身榮養의充實과 體組織의强化를圖謀함으로感氣에걸리기쉬운體質도感氣、肺炎 結核等도쉬사리 걸리지안는

抵抗 力이充實한 體質로改善할수가잇슴으로 [illegible] 愛兒를둔家庭에는常備하야가되는것이다

藥劑의選定法

『錠劑わかもと』는 하로며칠에不過한廉價로 東京市芝公園大門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特히發賣하며 全國藥店에서도팔고잇스며最近本劑의聲價를利用하야 『錠劑酵母 イースト等의類似名을쓰는製劑가만히낫다나 『錠劑わかもと』와效果에差異가업다고하며 이러한類似藥을 파는藥店도 잇스나 『錠劑わかもと』는 敎百種을籍이는 刷ー뻑萬中 가장適當的優良가만흔特殊한菌種을 完備한大規模의製造設備下에서 事實特許方法으로 製劑한것이니일흠이나外觀의類似한製劑인고로 効果同一하다고할것은 큰잘못이다

000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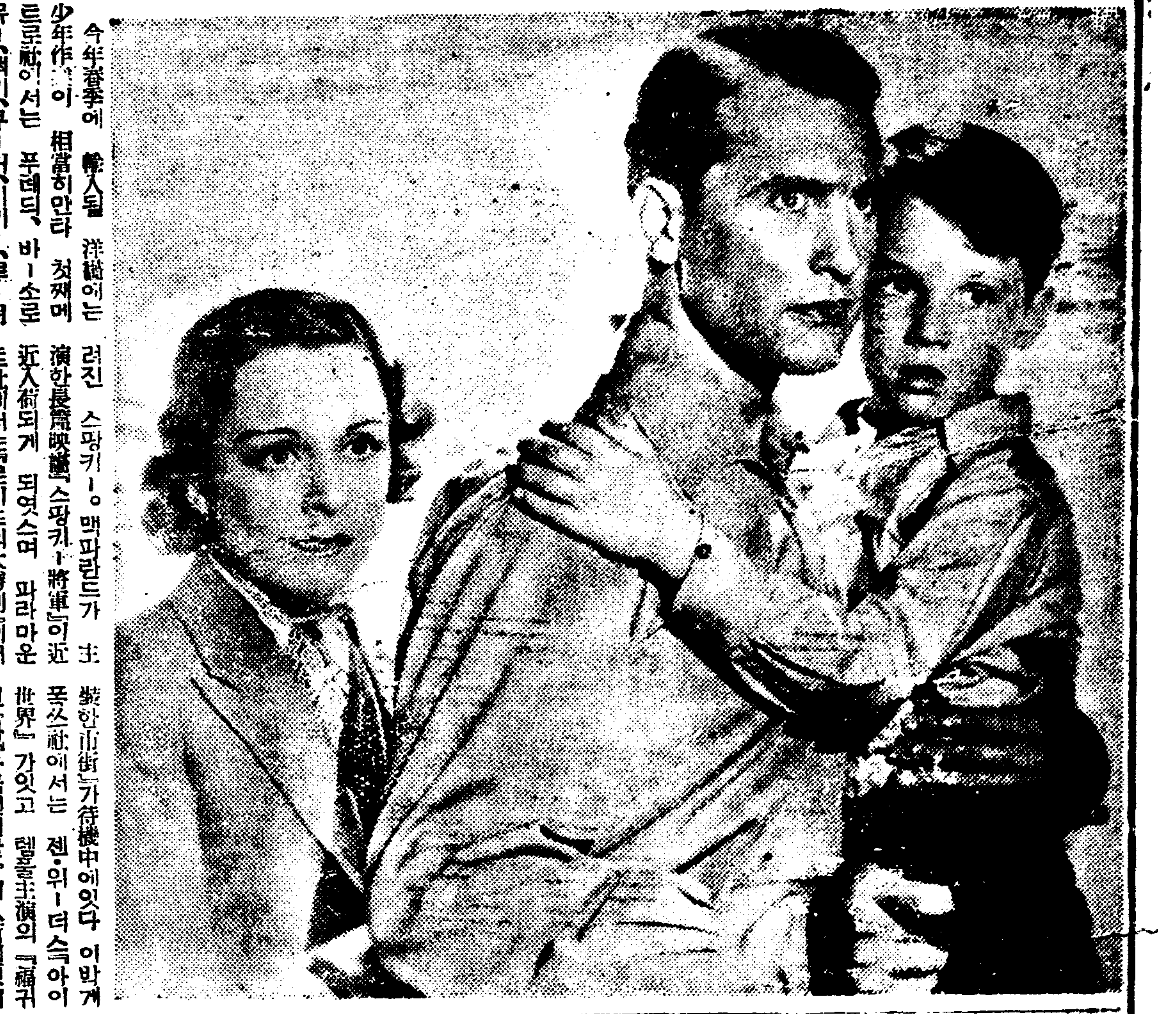
父母는胃腸病輕快 아들은感氣에안걸려

(愛知) 飯谷範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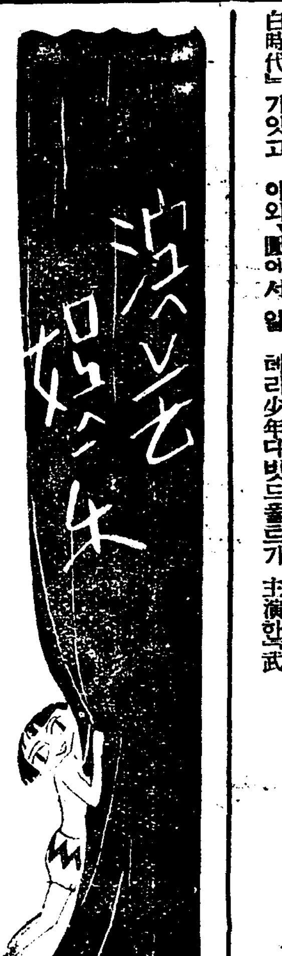
小生三年前까지、慢性胃腸病으로 困難을바더섯는데 大阪每日新聞에서『錠劑わかもと』가效果가잇다는말을듯고直時服用을하엿드니 順次快方하여지며 前과가티 健康한몸이되엿다、그恩澤으로每日事務에精進할수잇게되여지금도繼續服用하며 (錠劑わかもと)의 恩惠를感謝한다

一年半前에는親舊二名에게도 効果에優秀함을말하얏고 똑가티服用을하고잇스며 健康增進에는 格別한効果가잇다고하야 깁히感謝를드리는바이다

더욱이 小生의아들(當年三年生)은 腺病質로甚히 悲觀을하야 肝油其他를服用식혓스나 여러가지事情으로永續치못하고 試驗삼아小生愛用의『錠劑わかもと』를一年前부터먹이여보앗드니 以前에比하야感氣도걸니는일이업고 體重도增加하얏다 一般健康의向上도[illegible]이라 고맙고잇스며 每日服用식히고잇다



今年春季에 輸入될 洋畵에는 少年作品이 相當히만타 첫째에 드로社에서는 푸레듸릭、바ー소로뮤ー、잭키ー쿠ー버、미키ー、루ー니의三少年이 競演한 兒童劇『腕白時代』가잇고 아와、圓에서 알려진 스팡키ー。맥파란드가 主演한長篇映畵『스팡키ー將軍』이近近入荷되게 되엿스며 파라마운드社에서는『로이드의大勝利』에서 로이드의幼兒로 扮裝하얏든 인테리少年다빗드홀트가 主演한『武裝한市街』가 待機中에잇다 이밖게 폭쓰社에서는 젠•위ー더스의아이 世界』가잇고 템풀主演의『福귀신』과『우름진어름』이 入荷될것이다。(스팡키ー將軍『武裝한市街』)



最初의映畵俳優 푸레데릭氏逝去

웨스트오랜저에서

映畵의 原始時代—키네마토그렙의 搖籃時代부터 今日科學文化의 最尖端에까지 發達한가운데잇서서 映畵藝術에의 (金石功勞者인 同時에 活動寫眞의 發見者 토머스•에디슨과 함께 映畵史上에 永遠히 記憶되여야할 貢獻者 푸레데릭•P•오트氏가얼마전에 뉴ー자시ー州 웨스트•오랜지에서 逝去하얏다

同氏는 에디슨翁의 協力者로서 一八七四年代부터 電燈 寫眞 活動寫眞을 發明하얏슬때世界最初의 映畵俳優로서 카메라아페 섯든사람이다 그는 또한 마크•센네트以前의 喜劇의 創始者이기도한데 享年七十四歲이엿섯다

이고리의『五月』

蘇聯에서惡評

蘇聯메지램폼필모의 映畵『五月』은 이고리•사프쨍코가 脚色監督하얏는데 벌서一年前에 完成되엿스나 그內容이조치못하다하야『부라우더』紙의 映畵欄에서 形式主義及自然主義라는 批評을 밧고 物議를ー三켯는데 이로말미아마 監督 사프쨍코는 責任을 痛感하고 封切을中止하는同時에 그映畵의改作을 進行시키고잇다 改作의範圍는 同映畵의六〇%以上을 곳치고 겨우公開하게되엿는데 改作은하엿스나 亦是生活現實을過少評價한 不健實映畵라하야 非難을밧고잇스며 이러한 小市民的作品을 製作한다는것은 監督의 良心에反問할必要가잇다는말까지 나오게되며 映畵界에 쇼크를주고잇다 (무비라임스)

映畵와戀愛

유니버살社의 찰스R、로자ー스는 入社한지얼마되지안허서필장한 計畵을세웟다。平凡한머리로서 세운計畵으로는 到底히映畵企業을 運轉해나갈수업게되엿이 지금終林의 形便이라무엇이던지常識에버서난일이아니면 팬을끄을道理가업게되엿다 이사람의 計畵이란다른것이 아니라 夫婦싸움으로 離婚해버린윌리암、포엘과카롤、롬버ー드를 共演시켜서 팬의 好奇心을끄러 보자는것이엿다 싸움하고 갈리진夫婦 그들두사람이 共演한映畵ー이것은 興味잇는 映畵가아닐수업다 그리하야된 映畵가『紀律와寶石』이다 理由가잇서서 갈리진夫婦를 어찌하자고 共演을시킬가? 처음부터그들은 共演을拒絶하엿다 離婚한안해와男便이 어떠케共演을하리요 그러나 다가리쓰라린俳優生活에서 黃金이그리원다 돈을山가티싸아노코 共演하면 주겟다는데 끌려서하는수업시共演하게되엿다 지금그映畵의興行價値는 映畵自體에잇는것이아니라 離婚한夫婦가共演했다는데 焦點이잇다

이리하야 『紀律와寶石』는 世界映畵市場에서 罹兒노릇을하고잇는것이다 製作者로서의 로자ー스가成功한 드래靑後에는 自己의感情을犧牲하야 짓밟펴버린 두男女가 숨어잇다는것을이저서는 안된다。

지금 人氣가하늘을 찌를듯한 로버ー트•테ー라와 바ー바라•스탄윅戀愛는 有名한 事實이거니와 MGM社에서는 이두사람을 共演시켜서 『그외兄弟』라는 映畵를 製作하기로 되엿다。

이것도 決局은 테ー라와 스탄윅이 사랑하므로서 생겨난映畵이며 그러하므로서 興行價値가잇는것이다

진자•로자ー스가 新人지미ー、스추아ー트를 사랑하게되엿다 이戀愛事件이 센세이숀을 이르키자 RKO에서는 이두사람의 共演으로『카레ー아주머니와다린』이라는 映畵를 製作하게되엿다

昨年度와ー너社의 大作으로問題를이르키던映畵『스테이지•스트리크』는이映畵의主役俳優디크포웰과존•부론델이結婚을하게되는前夜에 封切되엿는데 그廣告에는 『突然封切 本映畵의 히로ー와 히로인은 明夜에結婚式을 올리게되엿다 相思相愛하는 兩人의모양을 本映畵를 通하야 보아라!』하고百%의 宣傳效果를내라하얏다 그리하야 이廣告文이 問題가되여서 워ー너支社의反感을사게되여 이映畵는그만埋葬을當하게되다시피하엿스니 이것은戀愛와映畵의相克되는運이의야기다 커든는『紀律와寶石』

라디오

八日(月曜)

◇午後六時 (平)合唱과獨唱 平壤光成高普音樂部 指揮 權泰浩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產業뉴ー스

◇同七時三〇分 常識講座 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 어화靑春 二、唱劇調 沈淸歌 吳太石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遊山歌外 一、遊山歌 二、제비가 三、달거리 四、평양가 張一朶紅 全光泰

◇同九時 歌詞 一、相思別曲 二、黃鷄詞 李月色 金美花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六時(城)하모니카

◇同六時 하모니카(平壤)

◇同六時二五分(城) 講座

◇同七時三〇分(城)(平) 煙臺夕按摩

◇同八時一〇(城)歌謠曲

◇同午後八時二五(城)物語

◇同八時五〇分(東)映畵劇

九日(火曜)

◇午後〇時〇五分 報念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흥타령 五、개고리타령 金南洙 李素香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少곰이야기 崔三植

◇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미끄름 二、獨唱 쌰랑눈 (金興福) 三、齊唱 수레 四、獨唱 봄은와건만(吳順福) 五、齊唱 눈 六、獨唱 똥북새 (康南淑) 七、齊唱 꼿밧 八、獨唱 갈닙피리 (徐載鳳) 九、齊唱 옛이야기 新明學院兒童 作奏 金英順

◇同六時 (山)登山山熊 (テキスト五四頁) 安齊徹(第一放送)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金德文

◇同七時三〇分(平) 講演 칸트祭臺當하야 崇實敎授 朴致祐

◇同八時 流行歌 一、南國의사랑 二、『港口의一夜追憶篇』主題歌 三、靑春도서러워 四、荒野의달 五、相思의하로밤 六、마음의戀歌 作奏 DK管絃團 遺影心

◇同八時三〇分 古談『빗나는將星』 車靑吾

◇同九時 (東)室內樂 絃樂四重奏 一、絃樂四重奏曲伊品一의第一…하이든 作曲 鈴木鎭一編曲 二、同 伊品一의第五…하이든 同 第一바이올린 鈴木鎭一 第二同 鈴木喜久雄 비올라 鈴木秋良 첼로 鈴木二三雄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三曲

◇同六時二五分 (東)靑年의時間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舞臺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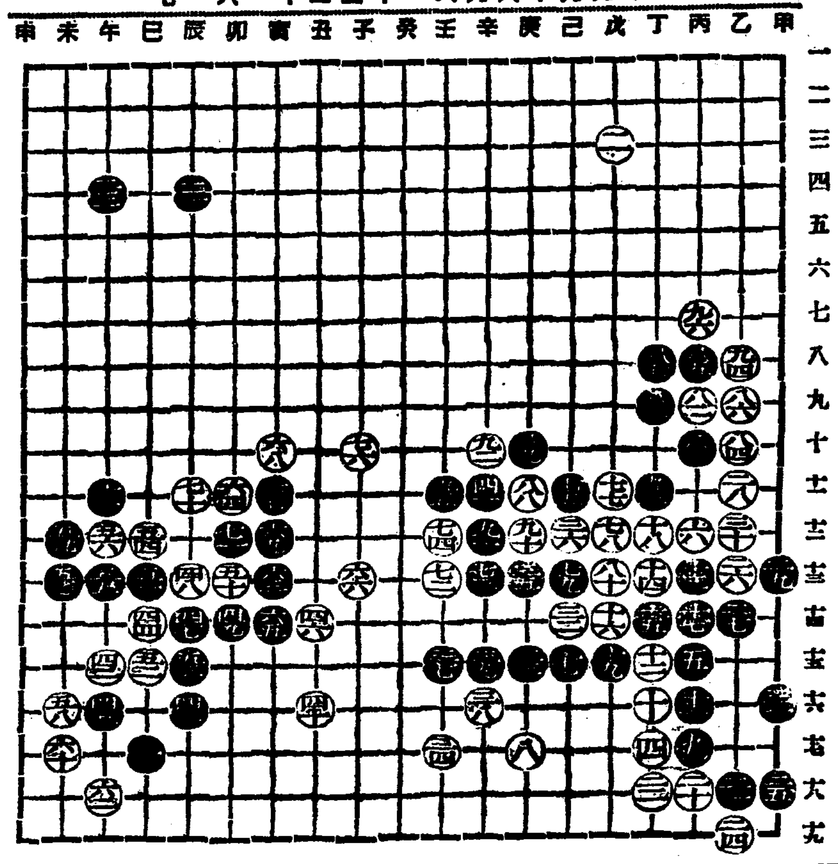
◇同九時 (東)室內樂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6—

白 蔡極文
黑先 丁奎春

丙의十 / 丙의九 / 丁의九 / 乙의十 / 丙의八 / 乙의九 / 丁의八 / 庚의十一 / 庚의十 / 庚의十二 / 辛의十二 / 辛의十 / 丁의十一 / 乙의八 / 壬의十一 / 丙의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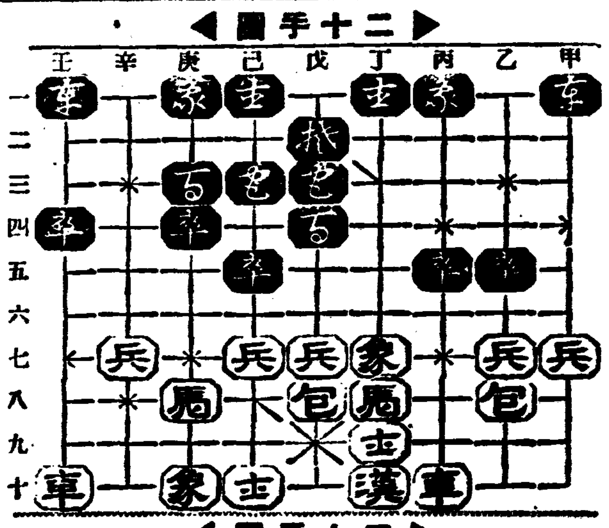
觀戰者談

黑九三(丁一一)에 白이九五로 黑을 封鎖하면 黑은 九四로 相戰을 始하야 結局先五手로 白이 路沒함으로 白은 九四(乙八)에 延長함이니라 高手段의 酬應이 龍攘虎搏의 勢로 盤旋經略하야 未來의 風雲은 滿局의 爭霸를 演出할지니 觀戰淺識으로는 幾料의 一辭도 不敢하는次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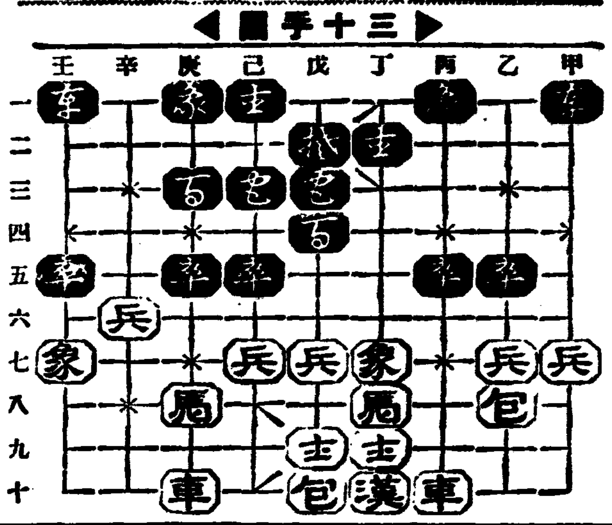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三)

先手 李在胤 對 金復起

◀圖十二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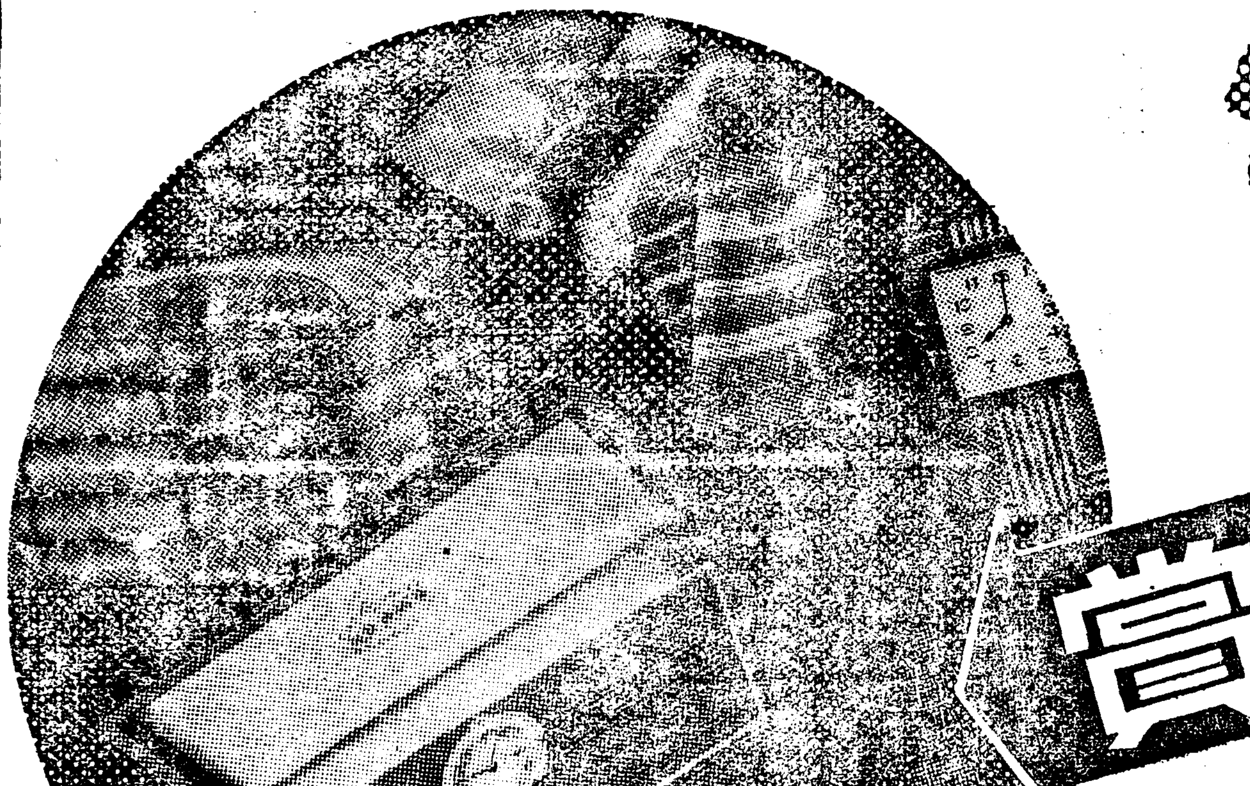
◀圖十三手▶



大懸賞

五百萬名樣 總當り!

이조흔機會를놋치면大損!
얼는이幸運을붓잡도록!



豪華版의 一等大景品

◎壹等賞(貳千名樣)
(イ)新型腕時計 壹個
(ロ)新柄御召銘仙 壹反
(ハ)銘仙座布團 壹組
(ニ)寶石入金指輪 壹個
(ホ)簡便卓上ミシン 壹臺
(ヘ)羽二重掛布團 壹枚
(ト)茶器 壹揃
(チ)流行婦人絹洋傘 壹本
(リ)ボストンバッグ 壹個
(ヌ)羽二重片側帶 壹本
(ル)總桐用簞笥 壹棹
(ヲ)家庭用ハカリ 壹臺
(ワ)總桐文机 壹個
(カ)最新型置時計 壹個
(ヨ)婦人雜誌無料購讀券(一ヶ年分) 壹冊
(タ)晴雨兼用絹洋傘 壹本
(レ)極上安全剃刀 壹個
(ソ)豪華お化粧セット 壹組
(ツ)特製鏡台 壹臺
(ネ)オートマッサージ 壹個
◎貳等賞(參千名樣) レート化粧料美麗詰合函 壹個
◎參等賞(拾萬名樣) 携帶用レート粉白粉 壹個
◎愛用賞(五〇〇萬名樣全部) 美麗世界十美人お化粧カード 壹枚
(愛用賞은賞品에빠짐업시進呈)

東京市日本橋區馬喰町一 平尾賛平商店懸賞係

살거침막는대!

レートクレーム (레도구레ー무)

懸賞課題

살가침、벗꺼름을막고、四季를通해 살결을保護하는 〇〇クレーム名을아십닛가?

答案用紙와쓰는法

レートクレーム의空函을 그대로떼고 裏面白地에左의順序대로 記入하야 近處레ー트クレーム懸賞參加販賣店에 갓다주시오 (누구나 다應募하시오 하사람이 몃장이든지조흠)

一、〇〇クレーム (〇〇字에글字를너으시오)
二、一等賞品中希望하는것一點 (イ、ロ、ハ로指定하시오)
三、住所氏名(年齡)
四、レートクレーム를 買入한 店名과場所
五、당신은 乾性인가 脂性인가
六、愛讀하는新聞、雜誌名을 하나쓰시요

〆切 昭和十二年二月末日
發表 同年三月末日新聞紙上

抵抗力 强化

細胞原形質을賦活하는
造血아옷호루몬!

全國帝國大學病院指定常備藥

造血機能亢進☆榮養의充實☆精力의增進☆弱體質의改善

ブルトーゼ

부루도ー제

補血强壯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D 1200

昨年水產額 三千餘萬圓
漁獲高만千三百萬圓으로 比前年九百萬圓激增
水產咸南에凱歌

【咸興】 일천사백여리의해안선(海岸線)에 무진장한 어리(漁利)를 포장하고잇는 함남도의 수산업은 근래 장신한 과학적어로방법과 양식어업등의발달과 양식장려 그비약적발전이 실로 괄목(刮目)할바잇다 함남도 수산계의 집계한 개산을보면 소화십이년중의 함남 수산고는 실로 삼천사백만원의 거액에 달하고잇스며 그전년도와 이천사백오십만원에 비하야 약구백오십만원의 비약적 격증을로 실로 공전의 초기록적호황을 보엿다 그중 어획고(漁獲高)를 보면 열군데 어조(漁組)에서 위탁취급한 칠백만원에 온어획고 오백만원 그밖게 위탁하지안흔것을 백만원으로하야 일천삼백만원으로 전년의 구백오십만원에 비하야 삼백오십만원의 격증이며 수산제조고도 명태와 그부산물 그리고온유비(溫油肥)온바(粕)등의팔백만원까지합하면 실로 이천일백만원이상이라고하는데 이역시전년도의 일천오백만원에 비하면륙백만원의 비약적 격증이다 이리하야 작년중함남 어촌은 어기(漁期)마다 기록적풍어로 미증유의 호황을 보엿다고한다

群山에小火 一棟二戶半燒

【群山】 지난오일오후여섯시오십분경 군산부산상정(群山府山上町) 이백이십칠번지최선근(崔成根)의집에서 불이일어나서 불은이웃집으로 옮겨 일동이호를 반소한후 동여덟시삼십오분에진화하얏다 원인은 실화라하며손해는약이백원가량이라한다

漆夜大路上에서 棍棒强盜出現 犯人翌日逮捕

【[illegible]】 아프로의 구세모도 멋날 남지안허 빈궁에 시달리는 일반 농촌에는 그러지안허도심각한 물정에 갓득이나 불안을 자아내고잇는데 지난삼일밤 여덟시경 영주군봉현면노좌동(榮州郡鳳峴面魯佐洞) 송주학(宋柱學)이란 로인이 제방수축비용(堤防修築費用)금구십원을 풍기시(豊基市)에서는 모씨로부터 바더가지고 저물게서야 집으로도라가든바 풍기를 거하기 약십리쯤되는 풍현안질동(風面雲泉洞)부근 산속에서 어떤 장한 두사람을맛나 심상히 보고 지나가는바 한참만에 아메가는전기(송로인)을 부르며 가지가자하므로 이에 가슴이선뜻하여거름을 급히하여 달리엿스나 뒤에서 추격이 급박하므로 하는수업시 붓잡히고 말엇다 그랄라 업듸 생각 나는대로 「기워에잇기는것이진데 버[illegible] 다놓고 돈은 끄내어 [illegible]로 어둠속에 떠것든바 따라은 악한 두명은곤봉으로 무수난타하여 정신을잃케하고 으돈을빼앗잇스나아모것도지니지안엇음으로 그대로어데로인지 다라나버렷든데 한시경후에 겨우 정신을차린 송로인은 불행중다행으로 자기가 떠진 방향을 더듬어 간신히 도동후를 다시 어떠가지고 집에까지 못가고 린근인가에서 자고 그익일인 사일아침에야겨우 집으로 도라갓는데 전신에 적지안흔 부상을입어 신음중에 잇다하며 이급보를 접한소관주재소에서는 풍기주재소와 협력하여 사건발생이일 오후 한시경 범인 두명을 무난히 체포[illegible]라고한다

旱害免稅地不拘 賭租를無理强徵
現金、正租、借用證書까지바더 三榮農場의苛酷處事

【甕津】 황해도 옹진지방에는작년에 한해를인하야 한해지면세중에이 어만서정원을 통과하얏다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이한해로 말미암아 빈한들의 수확도 엇지못하고 저수공원으로 기아선상에서 흔들하고잇는 그들상한 농민들을 위하야 옹진군당국마 황해도당국에서는 작년가을 이래로 한해지를 선정하야조사해가지고 지세까지 면제해준 엄연한 사실이 잇슴에도 불구하고 일개인의 농장으로서자기의 사복을 채우기위하야 지주가 소작인으로부터 현금마바와 또는 심지어 채용증서로써도조(賭租)를 강징한 사실이 잇스니, 전말을 탐사한바에 의하면 사무소를 마산시내에두고 현재 마산면내에 광대한 면적의 토지를가지고잇는 삼영농장(三榮農場)의 주인등본선길(藤本善吉)씨는 마산면 냉정리(冷井里)사는 리효자(李孝子) 김병규(金秉奎) 정만선(鄭萬善) 구게리(鷗溪里) 라화신(羅和信) 우경배(禹景培) 등 오씨외에 열사람(아직판명되지안엇다)한계열다섯명의 소작인으로부터 작년한해면세지에서 현금과 벼로도조를 강징하다가 돈이나 벼가업서서 못내는 작인에게는 차용증서까지 바든사실이잇섯다는데 이사실이 근일경찰당국에 탐문한바되야 당국에서는 사실을 엄중내사하는 한편으로 간련계자들을 호출하야다가 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道產業技手中心의 瀆職事件求刑
最高二年最下六個月懲役

【咸興】 도산업과 삼림기수로잇서 국유림대부(貸付) 양여(讓與) 조림사업(造林事業)감독의사무를 마터보든것을 기화로의여민리권가(利權家)들에게서 소화구년이월부터 십일년십월까지 이개년동안 십여회에 뻬처 팔백여원의 현금과 주식의 향응(饗應)을 바든 원강원도(江原道) 산업과기수 관원영(菅原榮三)평강등기소(登記所)서기 소전문웅(小田文雄)(二)등 오명에 관한수회(收賄) 배임(背任) 사기(詐欺)증뢰(贈賂)등 죄명에 대한공판은 오일함흥법원에서 평곡(平谷)판사외 당히평석(平石)검사로부터 아래와가티최고이년 최하 륙개월의 구형이잇섯다

菅原 榮 二年
小田 久雄 一年半
新谷 新七 一〇月
大村 義次郎 八月
金 要 龍 六月

執務不親切로 組員脫退續出
淸州某金組非難

【淸州】 청주모금융조합에서는조합원에대하야 근무시간 불니행이라 불친절로 탈퇴자가 속출하는일방 일반의 비난성이 자못 놉하가는데 자세한것을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기모조합은 근무시간이 오후네시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오후두시만되면 문을닷는고로농조합의 관내인 삼사십리떠러저잇는 진천군문백면(鎭川郡文白面)과 청주군오산면(淸州郡玉山面)등지에잇는 조합원은 시간잇도록가서도 벌서문을 다든고로 불입을 보지못하는때가 귀한시간을 이까닭에 허비케된다하며 대개촌사람은 장날(市日)즉닷새에 한번식 조합을 찻게되는대 대부금혹은 리자를 갑흐러가면 지금은 바쁘니 요다음에 오라하야 그후에가지고가면 기한이 경과하엿다하야 조합원에게대하야 폭언을토하는등 불친절하기 짝이업다하야 일반은 분개하고잇다는데 이로말미암아 조합원탈퇴자가 속출하는 현상이며 동조합근방에사는 부호이며유지인박모(朴某)씨는 동조합에 추태를 분개하야 예금을 오리나겨하여잇든 청주식산은행에 옮겨 예금하는일방 방금 동조합에 탈퇴수속중이라고한다

通川邑細窮民에 歲末同情遝至

【通川】 구년말을당하야 면내세궁민은 말할수업시 비상한곤궁에빠저잇는데 동정면당국에서는 직원이 총출동하야 면내유지에게 의연금품을어더서 다소나마 동정의뜻을 표하게되엿섯는데이제활동한결과 의연바든 금품은 다음과갓다한다
▲二十四圓郡親睦會▲百圓劉錫堯▲白米一叺金瑄得▲十圓式李在龍 金星奎▲五圓式金錫允 兄弟商店 光盛商店 赤羽樹次 金振德 金恩得 李學奎 金承燮 金炳翼▲白米一斗五升李錫岩▲三圓式石允洙 金貞求 石鍾欽 金正律 宋貴善▲二圓式鄭在利 久保山舒雄 壇忠雄 成松七郎 金一 朴光玉

忠南道內各金組 貸付額記錄突破
昨年一年間에一千五百餘萬圓
組合員每人百五十圓

【大田】 농촌이나날이 피폐하야감에따라 농촌의부채는 해마다 느러가고잇다 충남도내 각금조에서 작년십이월중의 대부액을 보면 이백륙십구만 칠천이백구십삼원의거액에달한다 이것을전년십이월에 대부한 칠천칠백구천팔백팔십이원에 비교하야 약이백만원의 증가를 보이고잇스나 회수액은도리어 축소된것으로 보드라도 농촌의궁경은 가히상상할수잇다 작년일년간이강 십이월까지 대부총액이 일천오백오십삼만삼천사십사원으로 이것은 금조가 창설된이후의 최고기록이라고한다
현조합원 약십만명에 이것을 분배하야본다면 매호당부채가일백오십오원에 달한다고한다

父子가번가라서 作人을毆打重傷
小作料減下哀願中말성이되야 被害者側警察에告訴

【安溪】 경북의성군단밀면룡곡동(丹密面龍谷洞)에 거주하는 신화우(申和雨)는 지난여름 미증유의 풍수재로 일반농형이 흉작을 면치못하야 그의 지주인 동면외곡동에 거주하는 리정〇(李鼎〇)를 방문하고 소작료의 감하를 애원하다가 설왕설래에 언쟁이 되엿든바 돌연 리지주는 구타를가하므로 신은 세부득이 중상을 입은후집으로 도라가 치료를 한든중 또 다시 동일오후 구시경에 전기리 지주의 차자인 리〇홍(李〇泓)은 고용인 수명을 인솔하고 신의 집까지 차저가서 구타를 가함으로 불의의변을 당한전기 신 소작인은 방금 당지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여 취조를 진행중인데 일반은 사건의해결을 주시중이며 더욱 부도덕한 리지주를 비난중이라고한다

和解에不應한다고 提訴者를또毆打
加害警官이또被訴

【安溪】 별항보도와가티 소작료문제로리지주신소작인간의구타사건을 화해시키고저 당지단밀(丹密)주재소에서는 루차, 원고신에게취하를권유하엿스나 종시불응하엿든바이에격분한동소순사부장 고전(高田)모는 또다시 그에게 구타를가하얏슴으로피해자측으로서는방금소관검사국으로고소를제기하여 同중으로 부상사를 연출하엿는데 일반은사건의해결을 더욱 주시중이라한다

伊川、佳麗兩普校 二制部를實施?
兒童教育上大關心處

【伊川】 신학기의 개학이 한달을격하고잇서서 일반자녀들 부형들은 벌서부터 가슴을 조리고잇는이때 군내각보통학교의학급증설 학년연장에 대하야는아직까지 도당국의 예산내시가업스므로 군학무당국자는 침묵만 지키든차인데 이제 모처로서 탐문한바에 의하면 이천공보교는 이부제로 입학변마 오학년남실시하게 될것갓고 가려주공보교(佳麗洲公普校)에는 일학년만이부제로 할것갓다는데 이는 도학무과에서 도내전반적으로 한군에 무화교식을 이부제로 실시할 계획이니만치 마연 실시가 될는지는 의문이나 만약이부제로 실시되는때에는 지금현상으로서입부제로교수를하는오늘에도상급학교입학시험에합격자가 업서서교육자들의무성의하를비난하고잇는이때 다시금 이부제로서 실시한다면 금후아동들의학과진행상 얼마나한지장이 잇슬는지자못 주목되는바 군민의 의사는 지방주민이 모든비용을 부담하고라도 일부제로서 학급증설을 바란다는바 신학기부터 일부제로 실시하는냐 이부제로 실시하는냐? 하는문제는 과연 아동교육상 큰관심처라고한다

土砂崩壞로 人夫二名卽死

【釜山】 하로에 품삭륙칠십전을 벌기위하야 죽도록일하다가 흙덩이가 무너저서 무참히도 즉사한 참사가 하로에 두가지나 발생하얏다 지난륙일 오후두시반경에 부산부영선정(瀛仙町)에 잇는 동정 사정상○일(四井上升一)의소유 흙파내는일터에서 인부 다섯명이 일을하다가 흙더미가 문허지는바람에 인부 김모(金某)(三二)는 즉사하얏고 또 가튼날오후네시반경에 부내룡호리(龍湖里)에잇는 토목국조량출장소공사장에 인부십여명이 일을하다가 흙덩이가문허저서 인부최모(崔某)가 즉사하얏다고한다

子孫들大擧陳情 墳墓破壞한다고

【平壤】 평원군 동송면(平原郡東松面)에 소재한 군자림일대(君子林一帶)에는 삼백여년전부터 근에 산재해잇는 선조의 분묘(墳墓)를 직히는 량풍미속(良風美俗)이 잇는터인데 황금광시대의 파도는 여기에도 범람하게되여 최근에는 평양부내거주모(某)가 이군자림가운데에 금광을 채굴하게되여 분묘는 황폐될우려가 업지안허 차병호(車炳虎)외 이십팔명은 평남도청에 차저와 금광채굴취체를 진정했다한다

地方人事

▲鄭德欽氏(洪原郡興商會社長)二月四日洪原郡洪原面南塘里自宅에서長逝
▲安日成氏(白光主幹) 李英淑孃(正義女高出身)의 結婚式은九日午後二時부터白善行紀念館에서 曹晩植氏主禮로擧行
▲吳達世氏(朝鮮生命大田支部長) 新任人事次 本報大田支局來訪

古邑 關西少年蹴球大會

▲時 日 二月十三四兩日間
▲所 場 松巖運動場
◇主 催 松巖體育會
◇後 援 朝鮮日報古邑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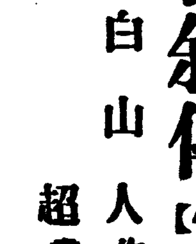
珍 —四肢가모다업는 나무토막가튼畸形兒
—晉州서생긴珍事로母子健在—

【晉州】 진주읍금정(晉州錦町) 일백칠십칠번지사는 포목행상 송일호(宋一浩)씨의안해 황씨(二三)는 지난일월이십일일에 사내아이를 분만하엿든바 머리몸체(胴體)는 완전하나 두팔은 억개로부터 한치쯤박게업고 다리는 형체조차업스나 생식기와 항문등은 구비하엿는데 다리가 부틀자리에는 큰 종양만한혹이 대신부터잇는 기형아이므로 부모되는 사람은 북그러워해서 이를 감추고 잇섯스나 자연 말이퍼저서 구경군이 매일 수십명식 문전에모혀들고잇다
기형아는 그후의외에도 발육이완전하야 조금도이상업시 잘자라고잇다는데 이에대하야 진주도립의원(晉州道立醫院) 산부인과(産婦人科) 고산박사(高山博士)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사지결손증(四肢欠損症)은 흔히보는바이지마는 이아해와가티 완전히업는기형아는 세계에도 드문일입니다 지금상태로보아서는 충분히 발육하여 장성할것갓습니다 그런데어머니는상남사녀를 낫다고하니 생산육자조하다고 기형아를낫는다는것은 아닙니다 아프로더자라면 여러가지연구해 보려고합니다 운운
(사진은 기형아)

國境一의新明學校 畢竟廢校의悲運
—理事會에서可決—

【渭原】 평북위원군 사립신명학교(私立新明學校)는 삼십여년의긴력사를가진 오로지국경에 하나인 이백여명의학생을 수용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실로 업서서는 안될이학교이엿스나 폐교설이전하여오기는 벌서 오래엿든바지금은 국도의 재정난을 엇지할 도리가 업서서 부득불 지난사일과오일 량일간 동교리사회를 개최하고 밤이맛도록 의론하엿스나 결국에는 폐교하는외에는 아무도리가 업다는가결을 짓게 되엿다하는바 후계인계자가 나서면 밧갓거 인계하리라는데일반사회에서는 이를만히 기대하고잇다고한다

長篇小說 그의自敍傳【49】
長白山人 作
熙超 畫



방랑의 길 (三)

자유는 언제나 저만을 따러고다니는 것인듯하다。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이여 게칭의 첫날은 심히 외로웠다。돌아보아 말할 사람도 없고 날은 유주데 내 힘잇게 돌은 때만 유난히 눈에 띄엇다。발값을 치를 니 주머니에 남은 돈이 겨우 일원팔십전, 이것을 가지고 나는 일생의 방랑의 밑천을 삼는것이었다。

나는 한푼 없는 사람이 되라고 내돈이 자라는대로 봉천방향으로 차표를 사가지고 거기서 내려서부터는 걸어서 북경으로 향할 작정이엇다。인가잇는데서 밥을 얻어먹으며 중국 남방을 향하야 내려가서 안남을 거처 면전으로 섬라로 인도를 두루 돌아 파사로 소아시아로 그리고는 구라파로다도 아푸리카에 들어서서 아비시니아와 애급을 보고 대륙을 종단하야 희망봉까지 내려가다가 ―나는이러한 꿈을 꾸면서 안동현 정거장을 향하고 걸어나갔다。

내가 고개를 푹 숙으리고 걸어가노라니

『남오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청복을 입은 젊은 사람, 웃다 그는 W로구나 하고 나는 사오년전에 서울서 K군의 소개로 한번 만난 일이 잇는 글 잘하는 W군이 총을 잃엇다。K군이라함은 독자도 기억하실는지 동경서 내게 바이론을 소개해준친구다。그는 나와 달라서 명가의 자제요 그의 아버지는 무슨 벼슬을하다가 시국에 분개하야 자살한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나는 K의집에서 W군을 처음 인사하엿다。W는 몸이 가날피고 손이 보드랍고는이크고 정기가잇는 사람이다。이는 K보다도 더 명가자제로 조부도 영의정을 지내고 증조도 영의정을 지내고 W군자신은 십사오세쩍부터 벌서 문벼이 높아서 문장이란 명치을 듣든이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반가운 뜻을 표하엿고 나도 다만 하로동안이라도, 다만 강하나새둔 곳일지라도 이역의 외로운 옛 친구를 만난것이 기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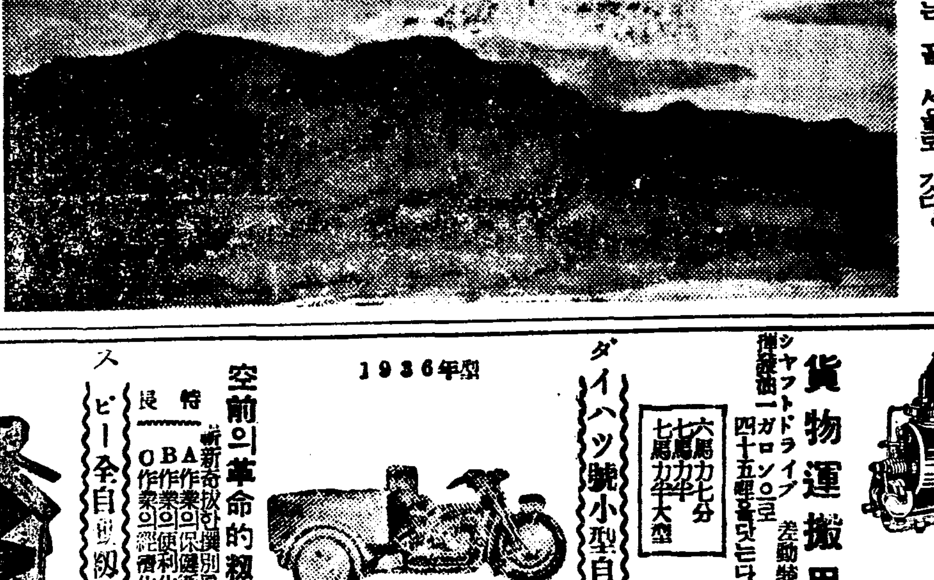
그는 내 여행의 목적을 들려니 그렇것 없이 우선 상해로 가라고 권하엿다。상해에는 바이론의 K군도 잇고 망생이라는 별명을 듣는 H군도 잇고 또 성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S군도 잇고 그밖에도 사변전에 K학교를 둘러서 망명의 길을 떠난 M신문주필 T도 잇고 여러명사들이 많이 모엿으니 그리로 가라는것이엇다。바이론K는 몰론이어니와 망생H나 성인S나 또 T고집이나 다 내가 잘 아는사람들이엇다。

「자 그렇게하라고」

하고 W는 그 가는 손까락으로 지갑에서 십원자리 지전 두장을 꺼내어서 내게 주고 또 어떤 청복 파는 집에 가서 떠린 청복 한벌을 사주엇다。

나는 W의 이 의외의 호의를 무한히 감사하고 그 말대로 상해로 가기를 약속하엿다。

W는 곧 서울로 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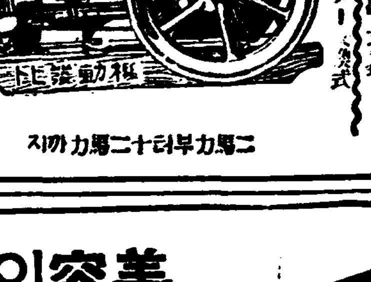


나는 배편을 알아보앗다。바로 그 이튿날 떠나는 요차오라는 영국 배가 잇는데 이것이 금년으로 마즈막 배라고 한다。대개 압록강이 얼어서 배가 대일수 없기 때문인데 이배도 강이 얼것이 무서워서 안동현까지 못 올라오고 산떱랑터오라는, 안동현서는 사오십리나 하류에 잇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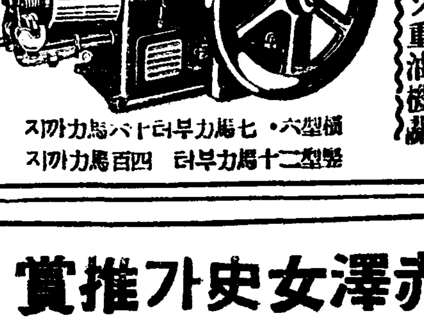
삼등표를 사라고 하엿으나 그것은 쿨리들이 타는 데라고하므로 이등표를 샀다。표를 사고 나니 돈이 일원얼마밖에 안남앗다。배까지 가는 삼판은 참으로 추웟다。호릿한 물에 풍랑은 높고 강 좌우언덕은 개흙과 마른 갈대뿐이엇다。그래도 중국사람들은 무에라고 줄끝 떠들어대엇다。석양 풍랑세인 흐린강우에 일엽주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감회는 실로 쓸쓸하엿다。나는 장차 어디로가는고하는 생각에 나는 길게한숨을쉬엇다。

배에 올랏다。낡은 조고마한 기선으로 더럽기가 짝이 없고 내가 탄 선실에는 나 하나 밖에 없엇다。넷이 잘 침대가 잇는 선실에 나 하나뿐이엇다。침대라고 매트레스조차 없엇고 널쪽뿐이엇다。바람은 불고 불긔기운 없는 방은 견딜수없이 추웟다。나는 C란는 한생이 준 붉은 담요로 몸을 싸고 잠이 들려하엿으나 추워서 잘수가없어서 방안에서 담요를 해서 어는 다리를 녹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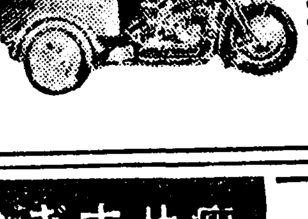
今年도亦是 籾摺精米作業에는
原動力界의覇王 トヒ燈油發動機 シリンダー式
二馬力부터二十馬力까지



代表的國產品 ダイハツ重油機關
重油消費量 五キロ(六·七馬力) 拾時間에約七十錢
橫型六·七馬力부터六十八馬力까지 竪型二十馬力부터四百馬力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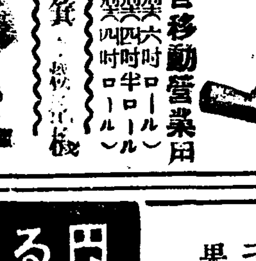


貨物運搬用 シャフトドライブ 差動裝置付 揮發油一ガロン으로四十五粁을닷는다
六馬力七分 七馬力半 七馬力半大型
ダイハツ號小型自動車



1936年型
空前의革命的籾摺機
特長 新奇拔한撰別原理 OBA作業의保健衛生化 OBA作業의便利化 作業의經濟化
スピー全自動籾摺機

新發賣 三十號
中農小組合移動營業用
一大 OBA A型(六吋ロール) OBA型(四吋半ロール)(四吋ロール)
スピー唐箕·籾撰機



其他スピー米撰機·イガハラ式稻扱機·トヒ式籾摺機 動力籾摺脫穀機(新發賣品)
稻麥兼用 在庫品豊富
特約販賣元
土肥發動機
釜山支店
佐藤農具部
釜山出張所
本社日本岡山
釜山府大倉町 電話長 一二六九番 振替釜山 一二三六九番

美容의權威赤澤女史가推賞
구라부白粉으로 特長을낫게해
얼골의修正法
クラブ白粉 구라부白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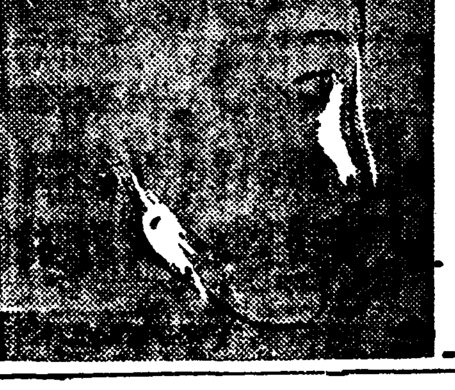
円い顔は細く

코ㅅ날을될신놉게하려면은코ㅅ등에白粉을만히바르는것보다多少구라부刷白粉을코ㅅ등을通하야코의兩側에구라부연수와調子를맛친다럭이너무나온部分이라도이와가티구라부연수를바르면당신의얼골이더새로워진다

瘦せすぎの方は

뺨가장자리에얼마간구라부美身크림을두텁게바르고구라부白粉으로그곳을진한듯하고도엷은듯하게바를것이다 또 날마다뺨가장자리에구라부美身크림으로맛사지를하면더욱效果的이다

鼻とアゴの修正は



둥근얼골을개름하게하려면구라부刷白粉을눈밋에서뺨까지쪽내리씻고연수를곱게바르면非히効果的이다普通때는藥用구라부美身크림을바르고손바닥으로빰을톡톡두드리는것갓치할것이다

頰骨をかくすには

于先化粧下로化粧水구라부乳液으로깨끗이살결을딱고白粉下에호루몬含有의구라부美身크림을펴친후구라부白粉을코의兩側으로부러귀까지가로길게씻고구리부연수도그方向에調子를맛치라瘦弱한感이조곰도업다

皮膚表面의呼吸을防止하고「白粉까름」「化粧거침」과가튼숨을가업스며구라부白粉을쓰면은皮膚에서 直接호르몬을吸收하야흡충한젊은生氣를주시만들수잇[illegible]
CP—36

全朝鮮耕地調査 ⑦ 賣買價格과收益

六、純收益最高額을示現

가、百坪當純收益

	品等	最高		最低		平均
畓	上	沙里院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中	載寧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illegible]
	下	黃州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田	上	水原	[illegible]	淸津	[illegible]	[illegible]
	中	元山	[illegible]	雄基	[illegible]	[illegible]
	下	鎭南浦	[illegible]	雄基	[illegible]	[illegible]

나、前回調査와比較 百坪當純收益累年比較

年度	畓 上 實數	指數	中 實數	指數	下 實數	指數
昭和三年	[illegible]	一〇〇	[illegible]	一〇〇	[illegible]	一〇〇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田

年度	上 實數	指數	中 實數	指數	下 實數	指數
昭和三年	[illegible]	一〇〇	[illegible]	一〇〇	[illegible]	一〇〇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純收益은 畓田各品共히 本調査를開始한 昭和三年以降漸次減縮되엇는데 昭和六年을 最低로하고 其後上昇傾向으로 轉하얏다 特히 本年度에는 各品等 共히 本調査開始以來의 最高額을示하야 前年度에 比하야 一割五分乃至二割의 增加인바 如斯한急增을 招來한것은 主로米價及其他農産物의 價格昂騰에 起因한것이다

다、地方別比較

地方	畓 上	中	下	田 上	中	下
南部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部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部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部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純收益을 各品等畓田에對하야 地方別로比較하면 大體南部朝鮮地方이 高하고 中部朝鮮、西部朝鮮地方의 順이며 北部朝鮮地方이 最劣하다

七、畓田賣買價格에對한賃貸收益利廻

가、全朝鮮平均利廻

地目	品等	利廻
畓	上	八・七五
	中	[illegible]
	下	[illegible]
田	上	[illegible]
	中	[illegible]
	下	[illegible]

나、前回調査와比較

中品等의 畓田에對하야前回調査와比較하면 如左하다

年度	畓 割	田 割
昭和三年	八七	九二
同四年	八二	八八
同五年	八四	九三
同六年	七七	九五
同七年	七八	九〇
同八年	八五	八七
同九年	八三	八二
同十年	八五	九二
同十一年	八二	八六
較差	〇三	〇八

即 本年度의利廻는 前年度에比하야 畓田共히 三厘低下이다 이는 主로低金利가 地方에浸潤한때문으로 認定되는데 現在의 情勢로는 今後耕地의賣買가 漸次低利廻로 展開될것갓다.

다、地方別比較

收益利廻를 中品等畓田에對하야 地方別로比較하면 如左하다

地方	畓 利廻	賣買價順位	利廻順位	賃貸價順位	田 利廻	賣買價順位	利廻順位	收益順位
南部	八五	三	二	二	八五	一	一	二
中部	八八	二	一	三	八三	二	一	一
西部	七七	一	三	四	七七	三	三	三
北部	八六	四	四	一	八二	四	四	四
平均	八二				八八			

即收益利廻는 畓田共히 西部朝鮮及中部朝鮮地方이 低하고 南部朝鮮地方은 最高를 示하얏다 이에依하면 西部中部地方은 近年地價의昂騰이 特히顯著한것이잇슴에 反하야 南部地方은 他地方에比하야 遲延된것갓다。(完)

重要肥料統制令과 外安輸入許可制 二月中으로發布實施

重要肥料統制法의 朝鮮施行에對하야서는 渡東中인 碓井總督府商工課長이 中央當局과 折衝하고 이미 法制局의 審議도 終了되엇슴으로 今月中에는 公布될터인데 이에伴하야 硫安의 輸出入許可規則도 府令으로써 公布케될것으로 過般의 重要肥料業委員會에서 二個年(十二年末)外安의輸入을 許可制로하기로決定하얏슴으로 朝鮮도이에追隨하게되엇다 한다

緬羊購入과 棉花補償制度 今後折衝決定

明年度의 緬羊購入을 協議키爲하야 渡東中이던 松澤

總督府 農務課長은 池井技師 黑澤屬을 帶同하고 七日午後歸任하얏는데 如左히 말한다 今回의 渡東은 明年度의 緬羊購入協議와 今般 農林省으로부터 提出할 綿價安定法案、棉花補償制度에 就하야 折衝키爲한것이엇는데 折衝이 開始되자 政變으로 二週間豫定이 三週間이되엇다 緬羊도 最後的 決定을보지못하고 歸任하얏는데 前年度의豫算을 踏襲할 方針으로서 購入處는 從來의濠洲와 今年은 뉴지란드도 넛케될지모르는다 前年度의豫算으로하면 購入頭數는 二千頭쯤이겟다 其他棉花補償制度도 今後의折衝에依하야 決定케될것이다

政府米買上 朝鮮의應募 百五十萬石?

政府의 米七十萬石買上은 六日 入札이 行하야 八日午後四時 日本內地 朝鮮을 通하야 農林省으로부터 그結果가 發表되엇는데 朝鮮內의 買上應募는 大體 玄米 正租를 合하야 百五十萬石으로 보이고 其中 正租는 約七割에 當하야 百萬石으로보인다。朝鮮米의 落札은 豫測不許이나 朝鮮米高及 産地所持大農側의 賣惜傾向으로 意外로 적어 應募量의 一割에止하리라고보인다。

經濟界消息

京城府花園町一八 藤田中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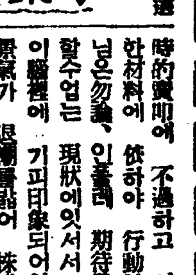
○小賣商店經營講習會=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第六回小賣商店講習會를 十五日부터 十九日까지 五日間 京城商議第二會議室에서 開催할터인데 講師는 京城高商教授山口武夫氏이오 聽講者數는 八十名限이므로 十三日까지에 京城商議業務課에 申込하기를바란다고

○第三回朝滿商議聯合理事會開催=【大連發商通】第三回朝滿商議聯合理事會는 來五月十四、五兩日 大連에서 開催하고 十六日出發 靑島經由 北中國을 視察키로 決定하얏다고。

○帝麻咸南에工場增設=帝國製麻의 咸南亞麻特約栽培는 本年은 六百町步를 擴張하야 合計二千四百町步로할터인데 原料工場은 豊山 甲山의二工場外에 本年中에更히 一工場을 增設할豫定으로 目下工場敷地를 物色中이라한다

○專賣局慰問班出發=檢疫의國境第一線에 勤務하는 專賣局員慰問第一班咸南方面의 慰問을終了한 專賣局에서는 更히 木下製造課長을 慰問使로 第二班을 編成하야 咸北方面에 六日午後三時五十分京城驛發十四日頃歸任豫定이라고

○朝鮮信託咸興支店=朝鮮信託會社에서는 八日午前十一時부터 定例重役會를 開催하고 業務協議와咸興支店開設의件에對하야協議하얏는데 二十日부터咸興支店을開業하고 支店長人選決定을하리라한다



○ 物價高時代에 賽賽한 話題가생기엇다고

○ 京城雜貨商組合은毛物、메리야스等四割을 비롯하야二、三割의引上을決定實施하고저仁川側에 提携要求하얏더니

○ 仁川側은『所持品을 파는것은 商人이 할일이아니라』고反對하얏다고

○ 仁川商人의말이當然 이리오 모든商業道德이 이러해야할걸

電車二十臺購入 觀水町에變電所新設 新株權利十圓으로公募

武者京電專務는 總會에出席키爲하야 渡東中이든바 六日午後歸京하야 如左히말하얏다

總會는 原案대로 可決하고 十分間에 無事終了하얏는데 增資에對한 一萬株의 公募株는 認可가잇는대로 株式團의 손을빌지안코 直接募集할터이며 프레미암도 極히輕하게 十圓以上附할러이다 興業費는 今年은非常한多額의 支出을 要하야上、下兩期를通하야 約五百萬圓以上에 達하겟는데 上期만으로도 約二百五十萬圓을 要하게되엇다 其主要한 工事는 如左하다

一、長津江送電會社로부터 七萬五千키로의 受電設備를 京城郊外에 施하는同時에 觀水町에 變電所一個所를 新設할터인바 이工費는 約二百萬圓이다 이에 從하야 受送電工事와 外線工事로 約四十四萬圓

一、電車乘客增加에 伴하야 電車大型보기 車二十臺購入 約四十萬圓 其中十臺는 二月中到着 十臺는 七月頃到着

一、빼스三十二臺新調 價格約十五萬圓

一、軌道工事 往十里複線工事 十萬圓 新龍山 三角地로부터 驛前까지의 改良工事 十三萬圓 淸凉里補線工事及郊外送電延長工事 十一萬圓

一、빼스車庫一棟增築工事

簡保支拂狀況

朝鮮簡易生命保險의十一月中 保險金支拂

「스틸」百弗示現

【紐育】電米國株式界의花形인 로온依前의 一九二九年에는二百六十一弗四分三까지 올랏든 U・S 스틸普通株도未曾有의 不況으로 【一時는二十弗近處로까지】 暴落되어섯든데 이二、三年來의米國景氣의回復、鐵鋼業殷盛과함께 回復步調로轉하야 今年에들어서는 더욱騰勢가顯著하게되어 四日市場에서 마츰내 百弗에 達하엿다。利喰賣物로九十九弗에 大引되엇스나U・S스틸의 파ー回復에 取引員은 歡呼를울렷다。同株의百弗市勢는 一九三一年五月二十二日以來의일이다。

軍事費도修正 總豫算削減程度尙未定 大衆課稅非難은不當

藏相車中談

【宇治山田電話同盟】林首相、河原田內相、結城藏相은 新任을奉告키爲하야 七日午前九時九分 宇治山田驛着, 伊勢神宮에 參拜하엿는데 結城藏相은 車中에서 左와如히 말하엿다

豫算問題로因하야 議會의停會延長은 될수잇는대로안하고저 目下大藏省에서 豫算修正을急遽中이대 一週間안에 結末을지울은 困難함으로 極力努力하고잇스나 大體九、十日頃의 情勢에依하야 決定될것이다 豫算案修正은 軍事費에도 抵觸될것이다 總豫算을어느程度까지削減될가는 아직判明치안흐나 巷間에서 期待하는 만콤削減되지는안흘지도모르는다 大衆課稅의 非難도잇스나 오날가튼 時代에는 富者와 貧者가서로 協力하고努力하지아니하면아니된다 富者로부터 金錢을 强奪하야 貧者에게 주는일을할수는업는것이다 財産稅等도當者의 倉庫까지 擾亂시켜서는 아니된다 地方財政交附金은延期할지 안할지는 地方制度의 改革이 九月에大體成立될것임으로 이와相俟하야가고저생각한다 郵預利下도實施를 準備할 必要가잇스나 四月一日부터 實施할지는아직알수업다 公債消化 生産力의 擴充에伴하야 公債消化를 輕忽히하는일이잇서서는아니되다 兩者가併行하야 進行하여야될것이다 物價騰貴에 對하여도 生産力擴充에伴하야 必然的으로發生한다는 見解도잇스나 現下 情勢로 보더라도 크게 考慮의餘地가 잇다고 생각한다。就任當初이므로 모도 단번에 結末을 지울수는 업스나 오래두고보기를 바란다。軍事費問題에 對하여도 서로 잘 諒解하야 協力하기바란다。萬若그것이 失敗하면 余의 힘이 不足한것이다。軍事費는 非生産的이이라고 말하일은 잇스나 그必要가 업다고 말한것은업다。

郵貯利下率 再檢討言明

【東京電話商通】結城藏相은就任과共히 馬場財政의修正을 言明하얏는데 業者廣田內閣에서決定한 馬場前藏相의低利政策에依한 郵貯의三厘六毛利下를 四月一日부터 斷行할方針에對하야 國民의 貯蓄心에重大한 影響을與함으로 再檢討할必要가잇는旨를 言明하얏다 從하야 前內閣의三厘六毛利下에 어떤케變更을 加할지가 注目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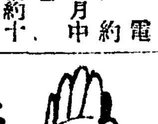
淸津製鐵所新設 七百萬圓大防波堤築造 大藏省과追加折衝

茂山鐵鑛의開發을 急히하는同時에 日本製鐵會社에서는 淸津港에製鐵所를 新設하기로決定하얏다 此에依하야 朝鮮總督府에서는 七百萬圓의 豫算으로大防波堤를 築造하야 築港할터인데 此豫算을 大藏省과 追加折衝하기爲하야 總督府榛葉土木課長은 七日午後 東京에向하야 出發하얏다 又日鐵會社에서는 鐵材積出에 安全을圖코자 前記防波堤內에 專用岸壁을 築造할터이라 엇다

大阪對外爲替

(二月八日)

對米	賣	二八弗二分一	買	二八弗一六分九
對英	賣	一志二片三二分三	買	一志二片



▲京城府勸農町一二〇 李相弼 ▲請負業

株式 追擊警戒 少康

今日의市勢【八日】

前場少康

休日을지난 市場은 再昨前場、大崩落의뒤끝이어 寄付는 거의不變裡에 同調이엇스나 米國株式의强調와賣方의利喰에 下支商狀이되어 四十九圓二十錢의 低價를 보엇스나 그後少康에 回復하야 百五十圓臺에 올랏든後、다시 低價思惑의 賣物로 百四十九圓七十錢에 止場하엿스나 市勢는 低堅味를 띠고잇섯다。

後場保合

後場은 東新百五十圓丁、大新八十八圓丁、鐘新二百二十八圓十錢으로 堅調裡에 寄付하야 保合商狀으로 推移되엇다

當分低價鍛鍊

再昨前場一擧에 百四十七圓八十錢까지 崩壞된 東新이 今朝에는 少康裡에 百五十圓〇臺를 回復하게 되엇는데 이는賣方의 로서도 이것이 玉整理에依한一時的賣叩에 不過하고 어떤特別한材料에 依하야 行動한것이아닌것은 勿論、인플레 期待를 忘却할수업는 現狀에잇서서 先高觀이 嚴然存在하고 株式市場은 買氣가 退潮를밟어 기피印象되어잇는以上 右를 不顧하고 賣進하기는 危險視되는것이오 玉整理도 相當한進捗을 보엇스므로이제는 買方이再出陣할 幕이아닌가 直覺되나 勿論 買方의 積極態度로 나선다하더라도 十六圓이나 내리친下勢를 一擧에 回復키는 至難할것이므로 再起까지에는 數日동안 低價鍛鍊으로 伸力을 培養치안흐면 안될것이다。그러나 此邊은 賣方의 利退와買方의 再出陣으로 市勢는 回復途程을 밟을것이아닌가하는것이 市場老練側의 一觀測인모양이다。

雜株도利喰低

金鑛株도 金買上價引上期待薄과 함께 日産新一圓五十錢低로 八三、〇落되어 日産新一圓五十錢低로 八五、〇日銀新二圓五十錢低로 八一、五 朝鮮製鍊은 不變이며 金鑛新 五十錢低로 二十四圓丁이며 石油株도 一息으로 日石新八十錢低로 六三、〇 朝石도 一圓五十錢低로 四二、五이엇다。船舶株는 英國側의 빗이코르說로 反落商勢가되어 日本郵船新이 一圓低로 三四、五 川崎造船이 一圓低로 四二、三 이며 大阪商船도 九十錢低로 六七、九 同新五十錢低로 二七、五이엇다 鹽水港糖도 一息으로 六十錢低 同新八十錢低인 六五、六、六、七五、五이며 日魯新도 二十錢低 共同漁業新도 五十錢低이엇다。

데절도 反弛로 一圓低인 二二、〇第二가 一圓二十錢低인二〇、八 大阪製鎖도 鈍狀으로七十錢低인 六七、八 同新五十錢低로 二五、五 에라파이新도二十錢低 東滿필프도 五十錢低인 二〇、五이엇다 다만라사工業은 頑强하야 八十錢高로 一二〇、八同新五十錢高인八一、〇이며 日滿아르미新은 아르미物高와함께 一圓五十錢高로 三四、五이며昭和人絹은 一圓八十錢 高로 四三、八日華紡이 一圓五十錢 高로 二八、五住友金屬丁이 百五圓丁으로 突高인것等은 買氣不退로 注目되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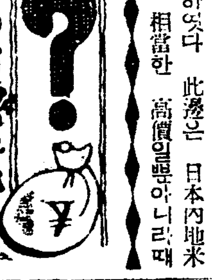
實物前場取引

▲大同產業六二〇 ▲東滿필프二五〇 ▲鹽水港糖新一三六 ▲大同電力新一〇〇 ▲人造羊毛一〇〇 ▲日滿아르미新一三二 ▲朝鮮製鍊二二〇 ▲大阪製鎖新一三五 ▲自動車工業一二〇 ▲同新一三〇

(取引高 一三〇〇枚)

國債 利喰賣로保合

▲東京【東京電話同盟】



株……

休日前慘落을告하엿든 主力株도 今朝에는 少康을回復▲先高로보기는하되 市勢는 항상 時日을要하는것이므로鍛鍊이 必要하고또 動機가必要▲큰動機가업스면 回復되더라도 伸力이遲遲할것▲雜株에는 商品의退勢로 低落되는것도잇스나 循環的買氣는 依然熾烈▲그러는동안株의平均指數는 날로昂揚▲이景氣가 언제꼿날지는모르되 前途波瀾이라하더라도 年에보기드문活況時代를 한번은示現할듯

米……

再次瓦落의原因은 그무엇? 結城藏相의 豫算又는議會의解散云云等▲要하면今回豫算削減이 一億圓程度에止한다면此는三十億四千萬圓에 達하는既定豫算에比하야 可謂鳥足之血▲此가 東實이라하면이를 勢의그自體로본다하더라도 인플레의必至는 可知▲當地三十圓九十八錢은 過高의嫌이업지안혀든만큼 反落으로착아리當然▲그러데아프로議會가 解散되는때는 又復一落을鹽發? 두고보자구나

買過의反動落 深入落은疑問

新春以來의 各地反撥은 正米賣勢의 自動力이 업는바는 아니나 大艦의 原因은 三十億四千萬圓이라는 大豫算이 通過될이라는 臆測의 浮動的買氣가旺盛하야 阪地의 三十二圓六十四錢當地 三十圓九十八錢의 高價를示하엿다 此邊은 日本內地米로의 相當한 高價일뿐아니라 때

期米 弱含裡에 下澁

前場續落

再昨後場阪地三十二圓九十七錢止와共히 三十圓九十七錢에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八十三錢인 七丁反落을擁하고 二十九圓九十錢인 七丁低로場을始한後 阪地八十六錢으로 返戾함을따라 一節來의猛烈한 賣物로 七十二錢에 寄付하엿든 中限은 二節八十八錢으로 先限은 九十二錢으로 昂騰하엿다 阪地六節八十錢으로 八十六錢으로返高한後 八十九錢에 止場암半伴하야 七節八十七錢으로 九十七錢으로 止場하다。

後場保合

後場은 二十九圓九十五錢인 二丁低로始場한後 二節九十三錢에少弛하엿다 三節九十六錢 四節九十七錢으로 五節九十五錢으로保合이엇다

强材의몃가지 高價또남엇나

越年後의各地商勢는특이인플레氣의必至를 豫期하고株式綿絲其他諸商品의 反撥을비롯하야米價亦此에 追隨하엿섯다 그러나昨今에 至하야는 三十億圓에達하는 尨大한 豫算이 通過되되기前에 先驅的 行動을 取하는곰 訂正市勢를 演出하는 모양인데 아즉도 强材의 몃가지는 남아잇다 今回結城藏相의 豫算削減이 果然一億萬圓程度에 止할는지 此가 事實化하는때는一時惡性『인플레』의 買煽을떠나서 財界自然의 趨移로의 本格的인『인플레』時代가 到來할모양이나는 今回政府米七十萬石의 買上을 完了한다할지라도 또四、五十萬石의 買替를 할것이 남아잇다 强材의 몃가지는 인데 아즉도 强材의 몃가지는 잇슬뿐아니라 農家의 自身도賣惜觀念을 一掃할理가 萬無할것이므로 前途大勢는 瓦落하지는 못할것갓다 그러나 昨今의 現象으로는 旣히 買煽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 八日

◆米　仁川期米 先限 大阪期米 先限 (東京二等米) 京城一等米 正租(仁川)一等 (一斤價)三等

◆株　朝新 東新 日産

◆商品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滿洲公債 一〇〇、二五

▲甲五分利一〇〇、五〇 ▲一回四分一〇一、〇〇 ▲佛貨一七四、五〇 ▲四分一〇〇、五〇

▲大阪 ▲甲五分利一〇〇 ▲第三五分一〇一、三五 ▲一回四分一〇一、九五 ▲二回四分一〇一、九五 ▲佛貨一九一、七 ▲米貨六分半三七七、三〇

成績相의 豫算에 對하야 賣返하는 買方의 利喰賣가 多少잇서서 四分은 五錢乃至十錢低가되고、實物도 一息商狀으로 無氣保合이며 米貨만은 西高를 올겨 掉目買가 잇서서 六分半一圓三十錢五分半二圓八十錢上進하엿다

마침結城新藏相의 經濟政策이 國民의 生活安定을 目하야 既定豫算의 相當한 修正을하게된다는 聲明이잇슴에 딸아 市勢는 다소 反騰하엿다 그러나 此結城藏相의 豫算削減은 一億圓程度에 止할모양으로 軍備만은 到底히 削減키難할모양인 極히 經濟政策으로보아서는 旣定의 方針을 二、三 修正에 不過할것이라 하야 此邊을 斟酌하면 豫算 當分은 觀望의 氣分으로 膠着狀態에 빠질것이라는 觀測이 有力하다

正米 洩米殺到? 氣崩

京城氣崩

京城正米는 應募洩落米의 市場殺到로 期米軟調로 氣配三十錢崩落하엿다 ◎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〇 一等白米三三、〇〇

仁川反落

仁川正米는 地不買로 賣買는 衰寥한바이잇서서 市況은 全혀 停頓狀態이다 氣配三十錢反落이엇다 ◎三等二九、八〇 四等二九、五〇 一等白米 三三、四二

釜山不勢

釜山正米는 市場賣物四千叺으로 多少 增加하엿는데 今日 決定의 買上數量에 關心을가지고 積極的態度가업서 期米軟調와함께 市場人氣는 不振이엇다 ◎三等 三〇、五〇 四等 三〇、二〇 一等白米 三三、九〇

大邱軟化

大邱正米는 氣가 昂揚되지안코 當用側도買盡嚇로보이므로 期米不勢로 乘하야 氣配十錢軟化이엇다 ◎三等 三〇、〇〇 四等 二九、七〇 一等白米 三三、一五

木浦弱含

木浦正米는 買上期待로 底堅强하나 應募洩落米의 市場流出念慮가잇서서 이動向에 注意를하야 市況은沈靜에終始되고잇다 ◎三等三〇、〇〇 四等三〇、〇〇 一米白米 三三、〇〇

群山低落

群山正米는 買上應募洩落米殺到할念慮가濃厚하야 買氣挫折되어 市況은 極히沈靜을示하고잇다 이에加하야 期米不勢로氣配三十錢低落을 告하엿다 ◎三等二九、九〇 四等二九、七〇 一等白米 三二、八〇

海外經濟 六日

倫敦 金塊 七磅二志 一片二分一; 倫敦 銀塊 二十四片 六八七五; 紐育 銀塊 四十五仙; 紐育 棉花(三月限) ; 印棉 平均; 米棉 先物; 倫敦 砂糖 ; 市俄古 小麥 ; 工業株 二十種 九八、四 鐵道株 二十種; 紐育 生絲 [illegible]

鰮油粕·麥粉

◆阪神鰮粕　◆阪神鰮油　◆日本麥粉市勢

銀行券 六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所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銀價

◆金買入價 ◆東京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仁川正米

京城雜穀　仁川雜穀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正租

京城綿絲布市勢

本絹交織人絹 ◆京城絹布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德
金·銀 白金
高價買入 京城德力 電話本局② 3939 1572
應酬販賣換引金代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長一九二 一九二五 六三九六

期米 玉
柳東恒取引店

米 株
東益商店
光皿
金益証券

朝取株式

◆朝取短期 ◆短期主要株取組 ◆算定代引日步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東京現株

朝取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取組高 中 先 / 出來高 中 先 / 合計 / 本期累計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後引氣配

◆日本各地期米 神戶 下關 名古

綿絲 ◆大阪綿絲

棉花 ◆大阪棉花

人絹 ◆各地人絹 大阪 東京 福井 ◆大阪人絹現物 帝人 東洋 旭 昭和

生絲 ◆橫濱生絲

砂糖 ◆大阪砂糖 ◆東京砂糖 現物 ST 倉買中雙 現物D格